

9주차

어휘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어휘의 유형
2차시	어휘의 변화
3차시	고대한국어의 어휘
4차시	중세한국어의 어휘
5차시	근대한국어의 어휘
6차시	현대한국어의 어휘

1차시 어휘의 유형

학습 목표

- 한국어의 어휘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와 허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어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각 시대별로 한국어의 어휘가 겪은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휘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휘는 단어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어휘는 단어와 구별이 되지만 개별적인 단어들의 형태와 의미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어휘는 단어들을 무작위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다른 언어 단위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체계를 이룹니다. 이렇게 공통된 속성을 가지면서 어휘 체계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집합을 어휘 유형이라고 합니다.

어휘를 유형에 따라서 나누면 그 어휘의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이 갖는 속성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을 나눌 때에는 기준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흔히 사용되는 어휘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는 품사, 기원, 사용역 등이 있습니다. 먼저 품사에 따른 어휘 유형을 살펴보면요. 품사는 단어들을 문법적인 성질에 따라서 몇 가지 부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품사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형태, 기능,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어의 단어는 형태를 기준으로 나누면 문장에서 모양이 바뀌는 변화어, 그렇지 않은 불변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단어를 나눠보면 주어를 비롯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체언,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용언, 다른 말을 꾸며주는 수식언,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 다른 말과 관계없이 홀로 쓰이는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더 세분해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은 동사, 형용사.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외에 다른 단어가 아닌 것들도 어휘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접사나 줄어든 말, 관용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품사에 따른 어휘 유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기원에 따른 어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에 본래부터 있었다고 생각되는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어를 고유어라고 합니다. 예문에서 (가)는 고유어 하나로 되어있는 말들이고 (나)는 고유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어떤 언어든지 많은 어휘가 다른 나라 말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말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말들을 외래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다양한 말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새로운 지역의 어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한자를 매개로 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한국어에 차용되거나 만들어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 한자를 가지고 표기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예문의 (가)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어고 (나)는 일본에서 한자를 매개로 들어온 단어들이고, (다)는 한자를 가지고 만든 말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기원이 어디냐. 어느 나라에서 온 말이냐. 이렇게 따지기가 어렵고 이 단어들의 공통된 특징 한자로 표기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자어라고 부릅니다. 한자어는 한국어의 어휘에서 다른 외래어들과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자어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 말에서 들어온 단어, 그 단어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을 외래어라고 합니다. 한국어에는 다양한 언어에서 외래어가 들어왔는데요, 제일 많은 것은 영어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말,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와 한자어. 이렇게 다른 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을 혼종어라고 합니다. '책값'은 한자와 고유어가 합쳐진 말이죠. 이렇게 기원에 따라서 고유어나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이렇게 나눈 것을 어종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어의 어종 중에는 한자어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역에 따른 어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가 사용되는 것은 그 환경에 어떠냐, 언어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언어 사용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어휘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렇게 언어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언어 사용이 달라지는 그런 영역을 사용역이라고 합니다.

어휘도 사용역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사용자가 되면 사용자에 따라 방언, 전문어, 은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는 속어, 금기어와 완곡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는 존칭어와 비칭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언을 먼저 살펴보면 방언은 지리적 공동체를 이루는 언어 사용자 집단에서 사용되는 어휘입니다.

한국어의 방언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새우'나 '가위'와 같은 단어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차이는 어휘 형태에서도 드러나지만, 문법 형태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요. 표준어에서 주격 조사는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서는 '-가'가 쓰이고 자음 뒤에서는 '-이'가 쓰이지만, 방언에 따라서는 예문의 (가)나 (나)와 같이 모음 뒤에서도 '-이'가 쓰이기도 하고 자음 뒤에서 '-이가'라는 조사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처럼 '-래'가 쓰이거나 (라)처럼 '내가'가 아니라

‘나’에 직접 ‘-가’가 결합한 ‘나가’라는 형태가 쓰이기도 합니다.

전문어는 특정한 전문가 집단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말합니다. 모든 전문 분야에는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 혹은 하위 분야, 사물 같은 것들이 있고 전문가 자체를 세부적으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어는 이런 전문적인 개념과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이고 전문어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일반어라고 합니다. 전문어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명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은어는 특정 집단이 비밀스럽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정 집단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문어와 공통점이 있지만 비밀스럽게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전문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은어는 상인, 심마니 즉 산삼을 채취하는 사람, 범죄자, 무당, 군인, 승려 등 다양한 사용자 집단에서 씁니다. 은어로는 명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은어가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은어의 목적이 비밀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을 가리킵니다. 이 속어는 흔히 쓰이는 말을 새롭고 신선하게 바꿔서 표현적인 욕구, ‘새롭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속어 중에 특정한 집단에서 주로 쓰이는 것들은 은어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어나 은어와 달리 속어는 명사 외에도 다양한 품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도 만들어지는 과정도 다양합니다.

한편 금기어는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완곡어는 금기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완화해서 금기어 대신 쓰이는 말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다’라는 동사 대신 ‘돌아가다, 하직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죽다’는 금기어가 되는 것이고 ‘돌아가다, 하직하다’는 완곡어가 되는 것이죠.

(나)나 (다, 라)에 나와 있는 것들도 모두 성행위나 변소 부정적인 행위와 관련된 사람 이런 것들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칭어와 비칭어인데요. 존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높이는 말이고, 비칭어는 반대로 사람이나 사물을 낮추는 말입니다. 사람과 관련되는 만큼 대명사나 혹은 동사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당신’이나 ‘노형’ 같은 것들이 높임의 대상에 쓰이는 경우가 있고 또 ‘계시다’ 이런 것들은 주어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드리다, 모시다’ 이런 것들은 객체가 높임의 대상인 것과 관련이 있을 때 쓰이는 존칭의 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비칭어는 사람과 사물을 낮추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기도 합니다. 예문의 (가)는 대화 상대방을 낮추는 대명사이고 (나)는 주어가 하는 행동

을 낮추는 동사나 형용사이고 (다)는 화자가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1인칭 대명사입니다. 비칭어 중에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말들을 겸양어라고 하는데요,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2차시 어휘의 변화

학습 목표

- 한국어의 어휘에서 일어난 변화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어의 어휘에서 일어난 변화의 요인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언어도 변해서 있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과정에서 물건이나 개념이 사라지면 그것을 가리키던 말도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어떤 물건이나 개념이 생겨나면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의 어휘가 변화하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변화에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은 형태와 의미의 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각각 속해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휘가 변화하는 유형은 형태가 바뀌는 형태 변화, 의미가 바뀌는 의미 변화, 속해 있는 범주가 바뀌는 범주 변화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형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죠. 형태 변화는 단어를 구성하는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탈락하거나 축소되어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어 전체에 일어난 음운 변화인 경우도 있지만, 일부 어휘에서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는 아래아(·)가 변화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변화한 단어입니다. 아래아(·)는 처음에 2음절 이하에서 ‘ㄱ’로 변하고 나중에 제1음절에서 ‘ㅏ’로 변했습니다. (나)는 구개음화에 의해서 변화한 단어들이에요. ‘ㅣ’나 ‘ㅑ, ㅓ, ㅕ, ㅗ, ㅛ’ 같은 모음 앞에서 ‘ㄷ’이나 ‘ㅌ’이 ‘ㅈ’이나 ‘ㅊ’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는 원순 모음화에 의해서 변화한 단어들이에요. ‘ㅁ, ㅂ, ㅍ’과 같은 양순 자음 뒤에서 ‘ㄱ’이 ‘ㅋ’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아래아(·)의 변화나 구개음화, 원순 모음화 이런 음운 변화는 해당하는 환경에 전부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한국어의 어휘 전체에 영향을 끼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휘 전체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어난 변화도 있습니다. 예문에서 (가)의 ‘벼룩’은 1음절도 아래아(·), 2음절도 아래아(·)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1음절은 ‘ㅏ’로 바뀌고 2음절도 ‘ㅏ’로 바뀌어서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면 2음절이 ‘ㄱ’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외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훈자’라는 단어는 원래 1음절과 2음절의 아래아(·)를 가지고 있는 ‘훈자’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단어는 순경을 비음이 ‘우’로 바뀌는 변화, 그리고 반치음(Δ)이 ‘ㅈ’으로 바뀌는 변화, 그리고 ‘ㅈ’ 앞에 ‘ㄴ’이 첨

가되는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서 현대한국어에서 ‘훈자’가 되었습니다.

예들은 한국어의 모든 어휘가 아니라 일부 어휘에만 영향을 끼친 개별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형태가 특정한 환경에 남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문에서 (가)의 ‘울’이라는, ‘우ㅎ’이라는 단어는 현대한국어에서는 ‘위’로 바뀌었습니다. 위쪽이라는 뜻이죠. 근데 조사 ‘ㅅ’이 결합하는 ‘웃어른, 웃돈’ 이런 환경에서는 ‘위’가 아니라 ‘우’라는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의미하는 단어는 ‘안’이 아니라 ‘ㅎ’을 가지고 있는 ‘ㄴㅎ’의 ‘얹’이었는데, 이것은 다른 환경에서는 ‘ㅎ’이 없는 ‘안’으로 바뀌었지만, ‘밖’이라는 단어랑 결합한 ‘안팎’이라는 단어를 보면 ‘안’이 아니라 ‘ㄴㅎ’을 가지고 있는 ‘얹’이라는 단어가 ‘밖’과 결합을 했기 때문에 ‘얹밖’이 아니라 ‘안팎’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운 변화로 인한 형태 변화의 결과가 방언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가)의 ‘여스’는 현대한국어에서 중앙 방언에서는 ‘여우’, 동물 여우로 남아있는데, 남부 방언에서는 이것이 ‘여시’로 남아있고요. (나)의 ‘냠’이나 ‘나모’는 ‘나무’라는 단어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났는데, 현대한국어에서는 중앙어에서는 나무로 남아 있는 반면에, 방언에 따라서는 ‘냠’ 형태가 관련되어 있는, ‘낭구’라는 그런 형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의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휘의 의미는 원래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변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로 변하기도 합니다. (가)의 ‘보람’이라는 단어는 원래 [표지]를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일의 좋은 가치]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고, (나)의 ‘얼굴’은 [형체]나 [모습]이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사람의 머리 앞면]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의미가 축소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의 ‘사랑하다’는 본래 [생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고, [생각하다]라는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휘 변화의 유형 중에 마지막은 범주 변화인데요. 특정한 단어의 품사가 바뀌기도 하고 원래는 단어였던 것이 접사가 되기도 합니다. (가)의 ‘새’라는 단어는 본래는 [새것]이라는 뜻의 명사로도 쓰일 수 있었고, 뒤에 오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관형사로도 쓰일 수 있었고, [새로]라는 뜻의 부사로도 쓰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새 집, 새 차’처럼 관형사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나)의 ‘녀느’는 본래 [다른 것]이라는 뜻의 명사 그리고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로도 쓰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느 때’, ‘여느 사람’ 이렇게 관형사로만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어였던 것이 접사가 된 예들도 있는데요. (가)에서 아래아(·)에 ‘ㄷ’ 받침을 쓰는 ‘묻’

이라는 단어는 본래 ‘맡’만으로 [맡이], 첫 번째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였는데 지금은 ‘맡’만으로는 그런 뜻을 나타낼 수가 없고 ‘맡딸, 맡아들’과 같은 그런 복합어의 일부로만 쓰일 수 있는 접두사가 되었습니다. (나)에서 ‘얹’이나 ‘술’ 같은 것은 그 자체로 암컷과 수컷을 가리키는 명사였는데, 지금은 ‘암탉, 수탉’과 같이 어떤 특정한 복합어의 일부로, 접두사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래 어휘적인 요소였던 것이 문법적인 요소로 바뀌는 현상을 문법화라고 합니다. 전 세계 여러 언어에서 이러한 문법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휘가 변화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언어적 요인과 비언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어적 요인으로 인해서 어휘가 변화는 예로는 음운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형태가 변화하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문에서 (가)의 예들은 ‘ㅁ, ㅂ, ㅍ’과 같은 자음이 가지는 성질에 뒤에 오는 ‘ㄱ’이 동화돼서 ‘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나)의 예들은 구개음화의 예인데 ‘ㅣ’나 이런 모음들이 갖는 성질에 앞에 오는 자음인 ‘ㄷ’이나 ‘ㅌ’이 동화가 되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앞이나 뒤에 오는 말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바뀌는 음운 변화는 발음이 편해지고 쉬워지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음운 변화라는 것은 일정한 시기에 적용이 되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에서 ‘느티나무, 잔디’ 이런 단어는 구개음화가 한참 일어나던 시기에는 모음이 ‘ㅣ’가 아니라 ‘ㅡ’였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음이 ‘ㅡ’에서 ‘ㅣ’로 변했기 때문에 느티나무, 잔디처럼 ‘ㅌ, ㄷ’를 가지고 있는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의미 변화에서도 언어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문에서 (가)의 ‘마슴’은 [마음]이라는 뜻과 [심장]이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의 의미만 있고요. (나)의 ‘치다’라는 단어는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가리킬 때도 쓸 수 있고 부모를 봉양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가축은 기르다의 뜻으로만 쓰이죠. 이것은 본래의 어휘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축소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언어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슴’의 [심장]이라는 의미는 한자어인 ‘심장’이, ‘치다’의 [부모를 봉양하다]라는 의미는 한자어인 ‘봉양하다’가 가져가게 됐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한자어가 생겨나면서 고유어가 가지고 있던 의미의 일부를 한자어가 부담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휘 변화의 요인 가운데 비언어적 요인은 지시 대상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시 대상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단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 변하

게 되면은 단어도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에서 ‘전차’는 전기의 힘으로 달리는 차량을 전차라고 하죠. 이것은 지금은 지상에서 달리는 전차는 사라지게 되고, 이 지시 대상이 사라지면서 그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인 전차도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전기의 힘으로 지상과 지하를 달리는 차량이 또 새롭게 생겨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옛날에 쓰던 ‘전차’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전철’이나 ‘지하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감’이라는 단어는 본래에 조선 시대에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던 말인데, 조선 시대의 벼슬 자체는 지금 사라지게 됐지만 ‘영감’이라는 단어는 계속 남아서, 높은 공무원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 남성을 대접해서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영감’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 사라지게 됐지만, 이 단어가 다른 지시 대상을 가리키면서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예입니다. 지시해야 될 대상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면 그걸 가리키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가)처럼 상표명이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고, (나)처럼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도 같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의 경우는 약간 드물기는 하지만 새로운 지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새 어휘를 새롭게 만들어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휘가 변화하는 비언어적 요인 중에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항상 동일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본래 사용하던 어휘가 아니라 다른 어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문에서 (가)의 ‘간호부(看護婦)’라는 단어는 여성을 의미하는 접미사 ‘-부(婦)’가 붙어있어서 여성만이 간호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성별의 의미가 없는 ‘간호원(看護員)’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간호원의 ‘-원(員)’도 의사의 ‘-사(師)’보다 낮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지금은 의사와 동일한 ‘-사(師)’자를 사용하는 ‘간호사(看護師)’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에서 ‘불구자(不具者)’는 본래 신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불구자라고 불렀는데요, 이 ‘불구(不具)’라는 말 자체에 원래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해서 ‘장애자(障礙者)’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자’라는 말에서도 ‘-자(者)’가 낮춤의 의미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지금은 ‘-인(人)’자를 쓴 ‘장애인(障礙人)’이 더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3차시 고대한국어의 어휘

학습 목표

- 고대한국어의 어휘가 어떤 표기상의 배경에서 성립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고대한국어의 고유어와 한자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한국어의 어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한국어 시기의 언어, 문자 생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할 때는 한국어를 사용했지만, 글을 쓸 때는 한자를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은 늦어도 삼국시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삼국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한자와 한문을 받아들여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와 한문으로 한국어를 표기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고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음(音) 그리고 훈(訓), 발음과 의미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표기 방법을 차자 표기라고 하는데, 차자 표기는 처음에는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이런 고유 명사를 표기하는 데 쓰이다가 점점 문장까지도 표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대한국어의 어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언어, 문자 생활상의 특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지지만, 고대한국어 시기에는 한자가 유일한 문자였고 그걸 이용해서 고대한국어의 어휘가 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문헌 자료에서 고대한국어의 어휘를 확인하려면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한 차자 표기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 차자 표기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고대한국어 어휘가 표기되었을 때 이것이 정확히 어떤 한국어 단어를 표기했는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음 첨기가 되어있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훈차(訓借) 표기와 음차(音借) 표기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음 첨기는 훈독자 뒤에 끝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덧붙이는 차자 표기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끝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는 주로 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기한 음가자입니다. 예문의 (가)에서 '夜音(야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이 '밤'을 의미하는 '夜'라는 글자만 적었을 때는 이것이 '야'라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밤'이라는 뜻

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한국어의 어떤 단어를 적었는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밤'이라는 뜻을 나타냈을 수도 있고 '야'라는 소리를 나타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밤'이라는 단어의 끝소리인 'ㅁ'을 나타내는 'ㅍ'이라는 한자를 덧붙였기 때문에 이 '夜音'이라는 표기가 '밤'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에는 '慕理尸(모리시)'라는 한자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慕'라는 한자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정확히 어떤 동사를 적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그 뒤에 '理'라는 한자가 오고, 'ㄹ'이라는 받침을 적을 때 쓰는 '尸'라는 글자가 와 있을 것을 통해서 이 '理'가 '그리다'라는 어간의 일부인 '그리-'의 '리'를 나타내고 '尸'라는 글자는 관형사형 어미 '-ㄹ'을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음과 뜻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차차 표기가 나타내는 어형을 추정할 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이 경우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표기가 존재하고 이것들이 각각 훈을 빌린 훈차, 음을 빌린 음차라면 상당히 자료적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가)를 보면 동일한 지역의 지명에 대해서 '賈忽(매홀)'과 '水城(수성)'이라는 표기가 나타는데요, 이 두 개의 표기를 비교해보면 '水'라는 것은 훈을 빌린 것이고 '賈'라는 것은 음을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城'은 훈을 빌려서 표기한 것이고 '忽'은 음을 빌려서 표기한 것이죠. 즉, 이 지역에서 '水'라는 한자의 훈은 '賈', '城'이라는 한자의 훈은 '忽'이었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異斯夫(이사부)'라는 사람이 '棼宗(태종)'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서로 비교를 해보면 '棼'라는 한자의 훈을 빌려서 표기하고 '異斯'라는 것은 음을 빌려서 표기한 것이죠. 그리고 '宗'과 '夫'의 관계도 '宗'은 훈을 빌려서 표기한 것이고 '夫'는 음을 빌려서 표기한 것입니다. 중세한국어에서 이 '棼'라는 한자의 훈이 '스'받침의 '잇'인 것을 보면, 이 이끼를 나타내는 '棼'라는 한자의 훈은 '잇', '宗'의 훈은 '夫'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한국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유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는 수사의 예인데요. 고대한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이 '一等隱(헛든)', '二脣(두블, 두홀)' 이런 자료들은 『계림유사』라는 후대의 책에 '하나'를 나타내는 단어가 '河屯', '둘'을 나타내는 단어가 '途亨',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途亨'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각각 '헛든'과 '두블'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명사의 예인데 '밤(夜音)'이나 '구름(雲音), 나리(川理), 누리(世理)' 이런 단어들이 '훤'이나 '理'라는 말음 첨기를 통해서 이 단어들이 어떤 어형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동사의 예인데 동사의 어형을 짐작할 때도 말음 첨기를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맞다', '남다'를 표기한 거구나. 이런 거를 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라)는 부사의 예입니다. 고유어들은 이런 말음 첨기나 훈차와 음차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독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8세기 경덕왕 때 지명을 한자로 고쳤는데요. 이때쯤에 이미 한자와 한자어의 영향력이 강력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어는 그때까지 고유어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한자어는 그 자체로 한국어의 어휘 체계 내에서 하나의 범주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차용어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고대한국어의 한자어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가)는 유교와 관련된 한자어, (나)와 (다)는 불교를 통해서 들어온 한자어입니다. 그중에서도 (나)는 외국어의 음을 한자로 옮긴 음역어인 것이고요. (다)는 외국어의 뜻을 번역한 의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불교 한자어입니다. 한자를 매개로 해서 들어온 일반적인 한자어도 있었지만 중국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들어온 차용어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에서 'ㄷ'받침의 '붓'이나 '먹'은 글자를 적을 때 필요한 도구인데, 이러한 필기구들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때 중국어 발음에서 붓과 먹이라는 명칭도 차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한국어에서는 이 글자들의 발음이 '필'과 '먹'인데, 이것이 '붓'과 '먹'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래 전에, 중국어에서 직접 한국어에 차용이 된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찰'이나 '술'은 '붓'과 '먹' 같은 단어보다는 시기가 조금 아래이지만 '尺'과 '俗'같은 한자어가 중국어에서 직접 차용된 결과로 보입니다.

4차시 중세한국어의 어휘

학습 목표

- 중세한국어의 어휘가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중세한국어의 고유어와 한자어, 차용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한국어의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세한국어의 어휘가 기록되어 있는 문헌은 고대한국어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후에 많은 한글 문헌 자료가 간행이 되었는데요. 한글 문헌 자료를 통해서 중세한국어에 어휘 체계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차용어의 순서로 중세한국어 어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세한국어의 어휘 체계에서 눈에 띄는 양상은 모음의 대립으로 의미의 차이가 드러나는 예입니다. 모음 조화라고 하는데요. 같은 성질을 가진 모음끼리 함께 나타나고 양성에 해당하는 모음, 음성에 해당하는 모음, 이것들은 서로 자기들끼리만 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에서는 양성 모음인 ‘아래아(·)’나 ‘고’, 음성 모음인 ‘ㅡ’나 ‘누’가 자기들끼리 쓰이면서 어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모음의 차이에 따라서 어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현대한국어에서도 ‘탕탕’과 ‘텅텅’이 ‘ㅏ’와 ‘ㅑ’라는 모음이 다른데 그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처럼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나)는 중세한국어에서는 의미의 차이가 있었지만 현대한국어까지는 이러한 대립이 이어지지 않는 어휘들이고요. (다)는 모음 차이에 따른 의미 차이가 15세기에 이미 확립이 되어있던 어휘들입니다.

(라)의 ‘남다’와 ‘넘다’는 두 가지가 서로 큰 차이 없이 쓰이다가 후대에 ‘남다’는 나머지가 있게 되다. ‘넘다’는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 지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살’과 ‘설’은 원래 ‘설’이 나이와 새해 첫날을 모두 의미하다가 근대에 와서 나이를 의미한 단어는 ‘살’, 새해 첫날을 의미하는 말은 ‘설’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모음 외에 자음에서도 소리가 대립해서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두드리다’와 ‘쭈드리다’, ‘그스다’와 ‘쯔스다’, 이런 것들은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차이가 어감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중세한국어에서는 어휘의 차이로 경어법을 나타내는 예가 있었는데요. 먼저 주체를 높이는 경어법에 해당하는 어휘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에서 '이시다'와 '겨시다'는 '있다, 계시다', '먹다'와 '좌시다'는 '먹다'와 '자시다', 이런 단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대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다'에 대한 높임말로 '주무시다'가 아니라 '자시다'를 사용했었습니다. 명사에도 이러한 높임말들이 있었는데요. '밥'에 대응하는 높임말로 '진지'나 '뫼'가 있었고, 3인칭 대명사 '저'에, 자기를 의미하는 '저'에 대응하는 높임형으로 '즈갸'가 있었습니다. 이 '즈갸'는 중국어 대명사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을 나타내는 어휘도 있었는데요. 이 단어들은 '니르다'는 그냥 '말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인 반면에, '르브' 받침의 '숯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하다' 이런 뜻으로 말을 듣는 대상 객체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객체 높이를 나타내는 어휘들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습-'이라는 어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중세한국어의 한자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자어는 고대한국어 시기에 점점 많아지고 있었지만, 중세한국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한반도에서 과거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 문화적이거나 학술적인 수준이 높은 단어들은 한자어에 의지하게 되면서 한국어의 어휘는 한자어에 압도되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예전부터 존재했던 고유어 단어가 한자어에 밀려서 소멸하는 상황도 생겨나게 됩니다.

(가)의 '슈룹'은 본래 '우산'을 뜻하던 고유어인데요. 그것이 이제 한자 '雨傘'에 밀려서 사라졌습니다. (나)의 '온'과 '즈문'은 각각 '백'과 '천'을 나타내던 수사인데 이것도 한자어 수사인 '백'과 '천'에 밀려서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의 '고마'는 '첩'을 의미하는 고유어인데 한자어 '훤'에 밀려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지금은 사라진 고유어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쓰이면서 의미가 변한 한자어도 있는데요, '간난'이라는 단어는 원래 한자어의 의미는 [어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가 [빈곤함]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면서 형태 또한 '간난'에서 '가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분별'이라는 단어는 중세한국어에서는 [걱정]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였는데, 지금은 [구별]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중칭'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중칭'은 본래 불교에서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중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짐승]이라는 뜻이 중세한국어 시기에 나타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중칭'이라는 단어의 발음도 '중칭'으로 바뀌게 되고 그 뒤에 '짐승'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대한국어의 동물 가리키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중세한국어에도 다양한 언어에서 들어온 차용어가 있었는데요.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몽골에서 들어온 차용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원나라의 영향력이 강력하던 13세기 무렵에 들어온 것들인데요. (가)에 관직명 같은 것들, 이것은 역사서에 한자로 기록이 된 것인데

원나라의 관직명이 고려에서도 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 다, 라)의 몽골어 차용어는 주로 말의 이름, 매의 이름, 이 당시에는 말이나 매 같은 것들이 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군사와 관련된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휘 차용에는 두 언어 사이에 일어난 접촉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세한국어의 차용어 중에 또 하나의 경로는 여진어에서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요. 여진어의 흔적은 주로 함경도의 지명에 남아있습니다. (가)의 'tümen'이라는 단어는 여진어로 '萬'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한국어의 '두만(豆滿)'으로 받아들여져서, '두만강'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wehe'라는 단어는 여진어에서 '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돌'을 가리키는 단어가 한국어에도 차용이 돼서 그 지명에 '翰舍(워허)'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에서 'tungken'이라는 단어는 여진어로 '鍾'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지역에는 '통건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는데요, 이 산에 '童巾(통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산의 모양이 종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童巾(통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몽골이나 여진 외에 중국어에서 한국어에 들어온 차용어들도 적지 않은데요, 예문 중에서 (가)는 복식과 관련된 차용어, (나)는 포백 즉, 옷감과 관련된 차용어이고요. (다)는 여러 가지 사물들과 관련된 차용어이고 (라)는 먹을 것과 관련된 차용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중국어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어휘들이 많이 차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용어들은 한자로도 표기가 되지만 단어들의 발음이 한자어의 발음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전통적인 한국의 한자 발음이 아니라 13세기 이후에 근대중국어의 발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처럼 전통적인 한자음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5차시 근대한국어의 어휘

학습 목표

- 근대한국어의 어휘가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근대한국어의 고유어와 한자어, 차용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근대한국어의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대한국어는 3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친 시기인 만큼 어휘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보인다고보다는 중세한국어에서 보이는 변화의 경향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한국어 어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변화의 경향이라는 것은 고유어가 사라지고 한자어로 대체되는 것. 그리고 한자어 외에 다른 언어에서 들어온 차용어가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창작되면서 보다 풍부한 고유어 어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근대한국어 시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한국어의 어휘 중에서도 고유어는 중세보다는 현대에 가까운 모습을 더 많이 보입니다. 먼저 다양한 음운 변화로 인해서 어형이 변한 어휘들이 있는데요. (가)에서 '거북'이 '거북'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ㅂ'이 'ㄱ'으로 바뀐 예이고, (나)의 '쟁'이 '쟁'으로 바뀐 것은 'ㅎ'이 'ㅇ'으로 바뀐 것이고, (다)의 '머리'가 '머리'로 바뀐 것은 'ㄹ'이 첨가되는 변화를 겪은 것인데요, 이처럼 음운의 변화가 형태에 영향을 주어서 변화한 예들이 꽤 있습니다.

한편 형태도 그렇지만 의미가 현대한국어에 가까운 쪽으로 변한 어휘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의 '스랑하다'라는 단어는 [생각하다]와, [사랑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었는데 이제 [생각하다]라는 뜻은 사라지고 [사랑하다]라는 뜻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의 '어엿다'와 '죇'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들은 단어의 의미 자체가 [불쌍하다]와 [용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가 각각 현대한국어에서는 이제 [예쁘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짓]이라는 뜻으로 바뀐 그런 예입니다.

(라)의 '어리다'는 '어리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나이가 낮다, 어리대]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면서, 본래는 [어리대]라는 뜻은 '점다'라는 단어가 그 의미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리석다]라는 뜻에서 [어리대]라는 뜻으로 바뀐 '어리대'라는 단어 때문에 '점다'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나이가 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의 '쌌다'라는 단어는 원래 앞에 'ㄷ' 받침의 '빔'이라는 단어가 오는 '빔쌌다'로 주로 쓰여서 [얼마만큼의 값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지금 현재는 '비싸다'가 [얼마만큼의 값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격이 높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고, 반대로 '쌌다'는 값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격이 낮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대한국어에서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는 현상은 중세한국어에서 있었지만 근대한국어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의 '노연'이라는 단어가 '관인(官人), 관장(官長)'으로 바뀐다거나, (나)의 '아즙'이라는 단어가 '권당(眷黨)'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자어에 대체되지 않고 아예 사라진 그런 단어도 적지 않습니다.

이 단어들은 중세에 간행된 원간본에서는 그대로 쓰이고 있었는데 근대에 이 책들을 수정해서 간행한 중간본 같은 곳에서는 '외푼다'라는 단어가 [새기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사기다'로 고쳐져 있거나, [작다]를 의미하는 '혁다'가 '적다'로 중간본에서는 수정이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또 원간본에서는 쓰이던 '외푼다'나 '혁다'라는 단어가 근대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중간본에서 '사기다'나 '적다'로 수정이 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외푼다'나 '혁다'가 사용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 한자가 하나도 없이 순 한글로 표기된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한문 구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열녀춘향수절가』라는 책에 처음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거의 다 한자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표현도 많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소설 작품에 한자 표현이 한글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당대의 대중적인 작가들은 물론이고 독자층들도 직접 한자를 읽고 쓸 줄은 모르더라도 한자어나 한자 표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한국어 시기에도 중국어로부터는 계속해서 차용어가 들어왔습니다. 18, 19세기의 어휘집이나 어휘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당시의 중국어 차용어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세한국어 시기와 마찬가지로 복식이나 먹을 것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차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들 가운데 '보리'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쓴 책인 『아언각비』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보리'라는 말은 본래 한자로 '파려(玻瓈)'라고 적는데요, 이 '파려(玻瓈)'는 '수정(水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파려'라는 한자로 표기되는 단어는 중국에서 이제 [bōli]로 발음이 됐던 것이죠.

이 단어가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bōli]라는 중국식 발음으로 차용이 되었고, 조

선에서는 이것을 원래 단어의 한자인 '파려'가 아니라 중국 발음을 따라서 '菩里'라는 한자로 표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언각비』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발음이 곡식인 '보리'와 같기 때문에 원래는 '수정 안경'을 의미하는 보리 안경이라는 단어를 곡식인 보리로 된 거울이라는 뜻의 '麥鏡(맥경)'이라는 한자어로 잘못 부르게 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차용어의 발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한자로 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국식 한자 발음을 가지고 그 단어를 표기하는 그런 현상이 근대한국어 시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접촉이 활발해진 언어로 일본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가장 큰 접촉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만들어진 일본어 학습서들을 보면 일본어 단어들도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국어 번역문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 외에도 근대한국어 시기에는 다양한 일본어가 차용이 되었는데요. (가)의 '다담이'는 바닥에 까는 그런 직물을 얘기하는데, 일본에 가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글에 나오고, '조총'이나 '담배, 고구마' 같은 단어는 모두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한국어에 들어온 단어 들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보면 새로운 문물의 유입과 함께 그 단어들도 가리키는 말도 일본어에서 같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대한국어 시기에는 만주어에서도 차용어가 들어왔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어휘들이 있습니다. 만주어는 북방 지역에서 접촉을 통해서 주로 일상적인 용어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한국어 시기에는 한반도와 인접해있는 국가들만이 아니라 서양의 개념과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들도 점점 많이 차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한 서구 문물에 대한 단어들도 많은데요. 17세기부터 중국을 거쳐서 유럽의 지도, 과학서 이런 서적과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구 문물들은 서양에서 중국에 와있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천주교와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천주교 관련 용어들도 점차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헌 자료 중에는 중앙어가 아니라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언해 문헌 자료에서는 드물게 방언 어형이 나타나는 책들이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문헌의 지역 방언은 부분적으로만 나타날 뿐이지 완벽하게 지역 방언으로만 되어 있는 문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문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규범적인 언어를 표기해야 된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밖에 조선 시대 기

록 중에는 자기가 가봤던 지역에서 직접 체험한 방언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봤던 지역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남긴 기록은 당시의 방언에 대해서 홍보하고 생생한 예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771년에 경상도 남해, 1773년에 함경도 종성으로 귀양을 갔던 유익양이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에는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에 대한 설명이 남아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방언에 대한 기록은 체계적이지 않고 단편적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소중한 당시 방언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차시 현대한국어의 어휘

학습 목표

- 현대한국어의 어휘가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현대한국어의 고유어와 한자어, 차용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한국어의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한국어는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데요. 현대한국어가 이전 시기의 한국어와 가장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어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의 개화기 이후에 서양을 비롯해서 다른 문명의 영향으로 인해 새로운 사상, 문물이 끊임없이 한국어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어 어휘에는 굉장히 많은 신조어와 외래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의 한국 사람들은 외래어를 서양에서 직접 받아들이기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한자어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양 학문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은 동양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개념들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먼저 한자어로 번역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한국어에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어의 'science'를 '과학'으로 번역을 하거나, 'geometry'를 '기하'로 번역을 한 것들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서양의 과학 용어를 번역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한자어가 서양의 사상과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한국어에서 한자어는 점점 비중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적(的)'이라든가 '-주의(主義)', '-화(化)', 이런 접미사들을 포함한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어에서도 '-적(的)'이나 '-주의(主義)'나 '-화(化)' 같은 접미사를 포함한 단어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매우 많은 파생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의 '애국적, 이상적'에서는 '애국, 이상'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 만드는 '-적'이 들어가 있고, '이상주의, 낭만주의'에서는 '-주의'가 접미사로 결합을 한 것이죠. (다)에서 '기계화, 민주화'에서도 '-화'가 그러한 접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접사들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휘들이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한자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중세한국어 이후로 한자어는 고유어 단어보다 좀 더 수준이 높고 고상한 표현에 쓰인다. 이러한 생각도 더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유의어가 존재할 경우에는 한자어 쪽이 조금 더 높이는 말에 해당을 하거나,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의 '연회(宴會)와 '잔치'를 비교해 보면 '연회(宴會)'가 '잔치'에 비해서 조금 더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라)의 '행보(行步)와 '걸음'을 비교해 보면 '걸음'은 완전히 일상적인 어휘라고 할 수 있는 '행보(行步)'는 좀 더 고상한 느낌을 주고 사람의 걸음걸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도 자주 쓰이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단어들도 많은데요. 그중에는 한자어로 번역이 된 다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서양어의 발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외래어도 많이 있습니다. 어휘가 차용되는 방향은 문화가 유입되는 방향과 같기 때문에 중세나 근대에 한국어에 들어온 말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어인 것이 대부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한국어에서 외래어의 거의 대부분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강대국인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에서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만 외래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밖에 다양한 언어의 말이 한국어에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 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이런 다양한 언어들에서 한국어로 단어들 차용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예술이나 요리와 관련된 용어는 프랑스어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음악과 관련된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에서도 그런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한국어 어휘 중에서 외래어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일본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의 어휘가 한자를 매개로 해서 한자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본어 발음 그대로 한국어에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에 제시된 단어들은 일본어의 고유어나 한자어가 발음 그대로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에 제시된 단어들은 일본어에서도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인데 그 단어들 다시 일본어를 거쳐서 한국어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는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개념들을 일본에서 중국의 고전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한자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들이고, (라)는 일본어에서는 원래 고유어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한자를 매개로 해서 차용한 그런 단어들이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 (가)나 (나)처럼 누가 봐도 한눈에 일본어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어들은 적극적인 언어순화 운동으로 한국어에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계속 쓰이고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한편 (다)에 제시되어 있는 경제, 공화, 방송, 발명 이런 단어나 일본어의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한 '가출'이나 '낙서, 수속' 이런 단어들은 일본어의 고유어지만 한자를 매개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도 이것을 일본어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국어에서 사라지기도 어렵고 마땅히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자를 매개로 해서 들어온 일본어의 차용어는 한국어에서 앞으로도 계속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한국어 어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조어들은 기존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단어도 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방식으로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는 원래는 긴 표현인데 거기에서 몇몇 어절의 첫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두음절어이고요. (나)의 '대인배'와 '하남자'라는 단어는 원래 존재하던 '소인배'나 '상남자'라는 단어에서 유추해서 만들어진 반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개념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말 이외에 새로운 대상을 가리키지는 않지만, 귀찮음을 피하거나 표현적인 효과를 위해서 글자의 사용을 새롭게 해서 만들어진 신조어도 있습니다. (가)는 기존에 존재하던 단어에서 초성만을 따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들을 두문자어라고 합니다. (나)의 단어들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단어에 글자 순서를 뒤집어서 만든 신조어이고요. (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단어들의 글자 모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표기에 사용되는 글자를 바꾸어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새로운 대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타이핑할 때 타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집단에서 표현적인 효과, 어떤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ecture

1차시 어휘의 유형

Hello, I'm Heo Inyeong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Inha University. In this class, we will study the history of Korean vocabulary. Before explaining the changes in Korean vocabulary in each period, let's first examine what vocabulary is and how it is classified.

Vocabulary is a collection of words. Therefore, vocabulary is distinct from words, but it is also important to study the forms and meanings of individual words. However, vocabulary is not a random collection of words, but like other language units, it has a certain system. The collection of words that make up the vocabulary system with common attributes like this is called a vocabulary type.

When dividing vocabulary by type, we can more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attributes that words belonging to that vocabulary type have. The criteria for dividing types can vary. Common criteria used to classify vocabulary types include part of speech, origin, and usage. First, let's look at vocabulary types based on part of speech. Part of speech means dividing words into several categories based on their grammatical characteristics.

The criteria for dividing parts of speech are form, function, and meaning. In Korean, words can be divided into inflected words that change their form in a sentence and invariant words that do not, based on their form. When dividing words by their functions, we can categorize them into nominal, including subjects and other sentence components; predicates; modifiers that add meaning to other words; relational words that indicate grammatical relationships; and independent words that can stand alone without any other words. Nominal can be further classified as common nouns, pronouns, and

numerals, while predicates are divided into action verbs and descriptive verbs. Modifiers include determiner and adverbs, relational words include particles, and independent words include interjections. Other linguistic elements, such as affixes, contractions, and idioms, can also be included in vocabulary. In addition to the overall parts of speech,

Vocabulary can also be categorized by origin. Words that have been in Korean since its early stages, as well as words that have been created based on these words, are called native words. In the given examples, (가) are composed entirely of native words, while (ㄴ) are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native words. Many words in any language are borrowed from other languages, and new words are created based on these borrowed words. Such words are called loanwords.

In the past, many words came from China, but nowadays, many new words come from different regions. In Korean, there are words that have been borrowed or created in Korean through Chinese characters, or "hanja." Although these words have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being written in "hanja," their origins and countries of origin are diverse. For example, (가) in the example sentence is a Sino-Korean word that came from China, (ㄴ) is a word that came from Japan through the use of "hanja," and (다) is a word that was created using "hanja".

Due to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se words, they are classified based on the criterion that they are written in "hanja", and are called "hanja" words or Sino-Korean words. "Hanja" words are generally distinguished from other loanwords in Korean vocabulary.

Excluding "hanja" words, other foreign words that have entered Korea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re called loanwords. Korean has borrowed words from various languages, with the majority coming from English. There are also words in Korean that have been created by combining two or more words with different origins, such as Sino-Korean and native Korean words, loanwords and "hanja" words, which are called hybrid words. The word "책값" (book price) is an example of a combination of "hanja" and native Korean words. The classification of words based on their origins, as either native

Korean, "hanja" words, loanwords, or hybrid words, is called "어종" in Korean. Among Korean words, "hanja" words are the most numerous.

Next, let's examine vocabulary types according to usage. The way a language is used varies depending on the external conditions of language, and vocabulary is no exception. This area where language usage varies slightly depending on external conditions is called usage context.

Vocabulary can also be classified into various types depending on the usage context. For example, when it comes to the user, dialects, jargon, and casual dialect can b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user, and depending on the user's attitude, slang, taboo words, and euphemisms can also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s, polite language and informal language can also be distinguished. Among these, let's first look at dialects. Dialects are vocabularies used by language users in geographical communities.

Korean dialects also differ depending on the region. For example, words like "새우" or "가위" can appear in very diverse forms depending on the region. Differences in dialects are not only reflected in vocabulary forms but also more prominently in grammatical forms. For example, in standard Korean, the subject particle '-가' is used after a word ending with a vowel, and '-이' is used after a word ending with a consonant. However, depending on the dialect, even after a word ending with a vowel like (가) and (나) in the example, '-이' can be used as a particle or '-이가' can be used after a word ending with a consonant. In addition, the particle '래' can be used as in the example (다) or '내가' where '나' directly combines with '가' for the first person singular subject marker can be used like in (라), instead of 'naega.'

Jargon, or "전문어" in Korean, refers to the terms used by a specific group of experts in a particular field. In every field of specialization, there are concepts, subfields, or objects unique to that field, and sometimes even experts themselves are differentiated. Jargon consists of words used to express these specialized concepts and objects. Unlike jargons, the vocabulary used in daily life is called general vocabulary. Jargon is characterized by an overwhelming proportion of nouns as it is used to refer to specific things.

Slang, or "은어" in Korean, is language that is secretly used within a specific group. Slang shares some similarities with jargons in that it is used only by certain groups, but differs in that it is kept secret. Slang is used by various groups such as merchants, ginseng collectors, criminals, shamans, soldiers, and monks. Slang uses predominantly nouns, and the process by which slang words are formed is often complex and not well-defined.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slang is to keep secrets.

On the other hand, vulgar language, or "속어" in Korean, refers to the low-level language commonly used by the masses. Vulgar language is created out of a desire to express oneself in a new and fresh way. Vulgar language often takes common words and re-imagines them in a way that satisfies this desire.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slang from vulgar language when specific groups use vulgar language. Unlike jargon and slang, vulgar language is not limited to nouns but can be formed from various parts of speech. The process of creating vulgar language is diverse and vari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Meanwhile, forbidden words are words that are not considered appropriate for everyday use, so they are not used frequently. Euphemism are words that are used instead of forbidden words to soften their negative connotation. For instance, when a person dies, instead of using the verb "죽다," the verbs "돌아가다" or "하직하다" are used as polite alternatives. "죽다" is considered a forbidden word, while "돌아가다" or "하직하다" is a euphemism.

Words in (나), (다), and (라) are all examples of euphemism used to express sexual acts or other negative actions involving humans. Next thing we're going to take a look are "honorific language" and "humble language". Honorific language is used to elevate the status of a person or object, while humble language is used to lower it. These language forms are often used in pronouns and verbs. Examples of honorific language include the use of the words "당신" or "노형" to refer to the listener or the subject being spoken about. The use of the verb "계시다" is also a common form of honorific language that is used to elevate the status of the subject. Verbs such as "드리다" and "모시다" are honorific verbs used when the object being referred to is

of higher status.

On the other hand, humble language is used to lower the status of people or objects. The speaker may even use humble language to lower their own status. The pronoun (가) in the example lowers the status of the conversational partner, while the verb or adjective used with (나) lowers the status of the subject's action. (다) is a first-person pronoun that lowers the speaker's own status. "겸양어" is a type of humble language in which the speaker lowers their own status, resulting in elevating the status of others.

Lecture

2차시 어휘의 변화

The world is always changing. People change and languages change, so things that existed may disappear, and new things may emerge. During this process of disappearance, words that referred to the disappearing objects or concepts also disappear, and when new objects or concepts emerge, new words to refer to them are created. In this class, we will look at the types of changes that occur in Korean vocabulary and examine the factors behind them.

Words that make up vocabulary are paired with their forms and meanings, and each word belongs to a specific category. Therefore, changes in vocabulary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hanges in form, changes in meaning, and changes in the category to which the word belongs. First, let's look at changes in form. Changes in form occur when the sounds that make up a word are replaced, deleted, or reduced. Such changes can occur throughout the entire Korean language or in only a few words.

For example, (가) is the word that changed together with the changes of "·" vowel. The sound "·" vowel first changed to 'ㅡ' in the words made of less than two syllables and later to 'ㅏ' in the first syllable. (ㄷ) indicates words that underwent a sound change called "palatalization." In this change, the consonants 'ㄷ' and 'ㅌ' changed to 'ㅈ' and 'ㅊ', respectively, before vowels such as 'ㅣ', 'ㅑ', 'ㅓ', 'ㅕ', and 'ㅗ'. (ㄹ) indicates words that underwent a sound change called "vowel rounding," where the vowel 'ㅡ' changed to 'ㅜ' after bilabial consonants such as 'ㅁ', 'ㅂ', and 'ㅍ'. The sound changes discussed, including the changes in "·", palatalization, and vowel rounding, are applicable to all relevant environments, and they are considered to have influenced the vocabulary of the Korean language as a whole.

However, there are also individual changes that occur without affecting the entire vocabulary. In the example, the word "벗흙" in (가) originally had the "·" vowel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syllables. The first syllable changed to 'ㅌ' and the second syllable also changed to 'ㅌ', which goes against the general rule that the second syllable should change to 'ㅡ'. The word "흔자" in (나) originally came from the word "ᄒᆞᆫᄇᆞᆯ", which had "·" vowel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syllables. Through several changes, such as the change of "ᄇ" to "우", the change of "ᄇ" to "ㅈ", and the addition of "ㄴ" in front of "ㅈ", it became "흔자" in modern Korean.

These are individual changes that only affected some words in Korean vocabulary. There are cases where the previous form of a word that underwent a morphological change is retained in specific contexts. For example, in the example, the word "울," which means 'up' and had the sound '우ᄃᆞ' in old Korean, changed to "위" in modern Korean. However, in environments where the particle 'ㅍ' is combined with "웃어른" or "웃돈", the old form '우' is still used instead of '위.' Additionally, the word for 'inside' used to be '안ᄃᆞ' with the consonant 'ᄃᆞ' instead of '안.' Although it changed to '안' in other contexts, in the word "안팎", which means 'outside and inside,' the word "안ᄃᆞ" with 'ㄴᄃᆞ' is used instead of "안" because it combines with the word "밖" for 'outside,' resulting in "안팎" instead of "안ᄃᆞ".

Changes in pronunciation can lead to different forms of words depending on dialect. For example, the word in (가), "여ᄃᆞ" in the central dialect of modern Korean remains as "여우" while in southern dialects it is "여시". Similarly, the words in (나), "냘" and "나모" are derived from "나무" but are preserved as separate terms in different dialects. In central dialects, "나무" is still used, while in certain dialects, the "냘" is used instead in the form like "냥구".

Next, let us consider semantic changes. The meanings of words can shift to different meanings or narrow meanings from broader ones. For example, the word "보람" in (가) originally meant [표지], but now refers to [a positive quality or value]. Similarly, the word "얼굴" (face) in (나) originally referred to [a shape] or [form], but now specifically refers to the front part of [a person's head], which shows that its meaning has been narrowed. The verb "사랑하다" (to love)

in (다) originally also had the meaning of [to think], but now only refers to [the action of loving someone].

The final type of vocabulary change is category change, where the part of speech of a specific word may change, or a word may change from a word to an affix. For example, the word "새" in (가) originally could be used as a noun meaning [new thing], as a determiner meaning [new], or as a particle modifying a noun, and as an adverb as [anew]. Currently, it is only used as a determiner modifying a noun, as in "새 집" (new house) or "새 차" (new car). The word "녀느" (other) in (나) originally could be used as a noun meaning [other things], or as a determiner modifying a noun. Now, it can only be used as a determiner modifying a noun, as in "여는 때" or "여느 사람".

There are also cases where a word has changed from being a standalone word to an affix. In the case of (가), the word "맏", which has the final consonant 'ㄷ' with the "·" vowel, originally meant [the first child]. However, nowadays, '맏' alone cannot express that meaning and has become a prefix that can only be used as a part of compound words like "맏딸"(eldest daughter) or "맏아들"(eldest son). Similarly, in (나), "암" and "수" were originally nouns that referred to female and male animals, respectively. Nowadays, they have become prefixes that can only be used as a part of specific compound words such as "암탉" (female chicken) or "수탉" (male chicken).

This phenomenon, where an originally lexical element becomes a grammatical element, is called grammaticalization. This phenomenon of grammaticalization appears in various languages around the world.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cause changes in vocabulary. These factors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factors.

One example of vocabulary change due to linguistic factors is phonetic change that leads to changes in word form. In the examples given, the change in (가) was due to vowel assimilation, where the vowel 'ㅡ' after the consonants 'ㄱ, ㅂ, ㅍ' assimilated to 'ㅏ'. In the case of (나), the change was due to palatalization, where the vowels 'ㅣ' and others have a certain quality that affects the consonants 'ㄷ' or 'ㅌ' that come before them. Phonetic changes in pronunciation occur due to the sound before or after them, and

are explained to happen because they make the pronunciation easier and more comfortable.

The phenomenon of sound change applies only during a certain period, and after that period, it no longer applies. In (다), words like "느티나무" and "잔디" did not undergo palatalization because at the time when palatalization occurred, because the vowel was "ㅡ" instead of "ㅣ". However, later on, the vowel changed to "ㅣ," which is why words like "느티나무" and "잔디" retain the consonants "ㄷ" and "ㄷ."

In some cases, linguistic factors also play a role in semantic change. For example, in (가), "마음" used to mean both [마음 (mind)] and [심장 (heart)], but now it only means [마음]. "치다" in (나) was to be used to refer to both raising livestock like pigs and taking care of parents, but now it is only used to mean raising livestock. This is a case where the original meaning of the vocabulary has been reduced, an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linguistic factors have played a role.

In particular, for the example of "마음", the Sino-Korean noun "심장" came to be used to express the meaning of [heart], Similarly, as for the Korean verb "치다", the Sino-Korean verb '봉양하다' came to be used, the more specific meanings were taken on by Sino-Korean words that could express them. In this way, Sino-Korean words took on some of the semantic burden of Korean words, leading to the changes of their meanings.

Among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lexical change, non-linguistic factors can be divided into changes in referents and changes in perception. Let's first consider changes in referents. Sometimes a word changes when the object it refers to changes. In (가), "전차" referred to a vehicle that ran on electric power. However, as ground-running 전차 disappeared in Korea, the object it referred to also disappeared, and the word "전차" was no longer used.

Similarly, when vehicles that run on electricity and travel both above and below ground appeared, a new word, such as "전철" or "지하철," was used instead of the old word "전차." In (나), the word "영감" originally referred to a person with a high government position in the Chosŏn period. Although the

social system of Chosŏn has disappeared, the word "영감" has survived, and is now used to address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a person with a high social status, or a man. The word "영감" no longer refers to its original object, but has taken on a new meaning and is still in use. When a new object comes into existence, a new word is created to refer to it.

Sometimes, as in (가), the name of a trademark becomes a word that refers to an object. In other cases, such as (나), a new term is accepted along with a new concept. (다) is a rarer example where a new word is created to refer to a new object. Changes in perception are another non-linguistic factor in lexical change. People's thoughts are not always constant, and as society changes over time, people's thoughts change as well.

When people's perceptions change, they sometimes start using different words instead of the ones they used to use. In example (가), the word "간호부(看護婦)", meaning "nurse", had a suffix "-부(婦)" indicating femininity, which implied that only women should be nurses, and this discriminatory connotation led to the term being changed to "간호원(看護員)", which does not imply gender. Later, as the perception that the suffix "-원(員)" was inferior to "-사(師)", which is used for doctor, emerged, the term "간호사(看護師)" using the same character as the term for "teacher", became more commonly used for nurses.

In example (나), the word "불구자(不具者)" originally referred to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However, the word "불구(不具)" itself implied a lack of proper function, and this led to prejudice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Therefore, the term was changed to "장애자(障礙者)". And recently as the perception that the suffix "-자(者)" has a derogatory meaning has emerged, the term "장애인(障礙人)" using the same character as the term for "person(人)" is more commonly used.

Lecture

3차시 고대한국어의 어휘

In this lesson, let's take a look at the vocabulary of ancient Korean. There were several characteristics of language and writing during the ancient Korean period. First, Korean was used when speaking, but Chinese characters were used when writing. This mismatch between speech and writing is thought to have started at least as early as the Three Kingdoms period. This mismatch continued for a long time.

People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began to adopt 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writing when the Three Kingdoms period began. Efforts were made to use 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writing to represent the Korean language. Through this process, Chinese characters' sounds, meanings, and pronunciation were borrowed to represent Korean language. This writing system is called the Chinese-borrowing writing system or "ch'aja p'yogi" in Korean. At first, it was used to represent proper nouns, such as people's names and place names, but gradually became capable of representing entire sentences. Understanding the vocabulary of ancient Korean requires keeping these language and writing characteristics in mind.

Later, the Korean script, Han'gŭl, was invented, but during the ancient Korean period, Chinese characters were the only script used, and the vocabulary of ancient Korean was recorded using Chinese characters. To verify the vocabulary of ancient Korean from old documents, we need to review Chinese-character texts that represented Korean language using the "ch'aja p'yogi". The Chinese-borrowing writing system, or "ch'aja p'yogi", was not a perfect system for writing Korean words accuratel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be sure which Korean word was written when ancient Korean words were

spelled with Chinese characters.

However, there are two types of materials that can help. One is the material that has a final sound mark, and the other is the material that shows both "hunch'a" and "ümch'a" for the same target. The final sound mark refers to the method of attaching a character that represents the final consonant to the right of the pronunciation character in "ch'aja p'yogi." This character representing the final consonant is the "ümga" letter, which is mainly borrowed from the sound of the Chinese character.

In the example (가), the character for "夜音(야음)" is written, but it is difficult to know whether this means the sound "ya" or the meaning "night" when only the character for "夜" is writte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know which Korean word this character represents.

However, by adding the Chinese character "音" which represents the final consonant 'ㅁ' of the Korean word for "night" (밤), after the character for "夜", we can understand that the writing "夜音(야음)" represents the Korean word for "night".

In example (나), the character "慕理尸(모리시)" i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t is difficult to know exactly which verb it represents with just the character "慕." However, the character "理" following "慕" and the "尸" character that represents the final consonant "ㄹ" follows, this word can be understood as indicating the "理" sound in the word "그리-", which is the stem of the verb "그리다." Additionally, the character "尸" is a marker for the adjectival form of "ㄹ".

Secondly, if there is a source that can simultaneously provide the sound and meaning of a particular object, it would be very helpful in estimating the morphology represented in the Chinese-borrowing writing system. In this case, if there are two or more different spellings referring to the same object and they are respectively based on the meaning or sound borrowed from Chinese characters, the value of the source material would be significantly increased.

For example, when looking at Example (가), two different spellings of the same place name, "貫忽(매홀)" and "水城(수성)," are presented. By comparing

these two spellings, we can see that "水(수)" is based on the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 and "買(매)" is based on the sound of the Chinese character. Furthermore, "城(성)" is written using the meaning-based approach while "忽(홀)" is written using the sound-based approach.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in this region, "水(수)" is the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 for "買(매)," while "城(성)" is the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 for "忽(홀)".

In Example (나), it is mentioned that a person named "異斯夫(이사부)" is also known as "棼宗(태종)." By comparing the two names, we can see that "棼(태)" is written based on the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 while "異斯(이사)" is written based on the sound of the Chinese character. Furthermore, "宗(종)" is written based on the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 while "夫(부)" is written based on the sound of the Chinese character. By looking at the fact that the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 for "棼(태)" in Medieval Korean is "잇," which is the consonant "ㅅ" followed by "잇" sound, we can infer that the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 for "棼(태)" (meaning "moss 이끼") is "잇" while the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 for "宗(종)" is "夫(부)".

In ancient Korean language materials, there are unique words that can be confirmed, including the following. First, there are numerals in (가) such as "一等隱(ᄒᆞᆫ)" and "二朥(두블, 두블)." These appear in ancient Korean language materials, and are represented by the words "河屯" for one and "途亨" for two in a later book called 『Kyerim yusa』. This can be seen as indicating the representation of "ᄒᆞᆫ" and "두블", respectively.

(나) is examples of nouns such as "밤(夜音)", "구름(雲音)", "나리(川理)", and "누리(世理)", which can be understood to represent the form of the word through the use of a final sound mark, "음" or "리". (다) is example of verbs, for which its form can also be inferred through the use of a final sound mark, and one can be more confident in the accuracy of the representation of the forms of the verb. (라) shows example of adverbs, for which many unique words do not have both a final sound mark and "hunch'a" and "ümch'a", making it difficult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pronunciation and meaning. Moreover, during the reign of King Kyöngdök of the Silla Dynasty in the 8th century, place names were changed to Chinese characters, indicating the strong

influence of 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words by that time.

Many Chinese words came into use to express various concepts that did not previously exist in Korean. These Chinese words formed a category within the Korean vocabulary system. The system of these Chinese words is different from other loanword systems. The majority of Chinese characters in ancient Korean language were introduced through China.

(가) refers to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Confucianism, while (나) and (다) are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Buddhism. Among them, (나) is a phonetic transcription, which is a foreign language's sound represented in Chinese characters. (다) is a semantic translation, which is a foreign language's meaning translated into Chinese characters. Although there were general Chinese characters borrowed through the medium of Chinese characters, it is also likely that there were borrowings directly from Chinese language through direct contact.

In (가), the tools needed to write characters such as '붓' and '먹', which have a 'ㄷ' final consonant, were brought into Korea through China, and the names for these tools in Chinese pronunciation, '붓' and '먹', were also likely borrowed. As a result, in Medieval Korean, these characters were pronounced as "필" and "묵", but since they were borrowed from Chinese directly into Korean as '붓' and '먹', it can be seen that these words have been borrowed into Korean a long time ago. As for (나), the words "장" and "솔" are not quite as old as words like "붓" and "먹", but they appear to have been directly borrowed from Chinese words '尺(척)' and '俗(속)'.

Lecture

4차시 중세한국어의 어휘

In this lesson, we will examine the vocabulary of Medieval Korean. Compared to ancient Korean, there are a significant number of documents recording the vocabulary of Medieval Korean. Especially after the creation of *hunmin chŏngŭm*, many Han'gŭl documents were made. Through these Han'gŭl documents, we can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ocabulary system of Medieval Korean, which we will examine in this less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native Korean words, Sino-Korean words, and borrowed words.

A noticeable feature of Medieval Korean vocabulary is the contrast of vowels that reveal differences in meaning, known as vowel harmony. Vowels that share the same property appear together, such as positive and negative vowels, which only appear with each other. In (가), positive vowels like "·" and "ㅏ" and negative vowels like "ㅡ" and "ㅓ" create differences in tone when used together.

In modern Korean, this phenomenon is commonly seen in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such as "탕탕" and "텅텅," where the difference in meaning is created by the difference in vowels. (나) represents words in Medieval Korean where there were differences in meaning, but in modern Korean, these differences no longer exist. (다) are words where the differences in meaning due to vowel differences were already established in the 15th century.

(라) shows how two words, "남다" and "넘다," were used interchangeably with little difference in meaning until later when "남다" came to mean "to remain," while "넘다" came to mean "to pass beyond a certain range." "살" and "셀" were

originally the same word meaning both age and New Year's Day, but eventually, "살" came to mean age, and "설" came to mean New Year's Day.

Furthermore, even in consonants, there are sounds that create differences in meaning, such as in "두드리다" and "쭈드리다," "그스다" and "썩스다," where the difference in sound between plain and tensed sounds creates differences in tone. In Medieval Korean, there were also examples where the vocabulary reflected honorifics. For example, some vocabulary corresponded to the honorifics that elevated the subject,

(가) gives examples of words that indicate high status, such as "이시다" and "겨시다," which correspond to "있다" and "계시다", respectively, and "먹다" and "좌시다", which correspond to "먹다" and "자시다". Although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odern Korean, Medieval Korean used "자시다" as a respectful term for 'to sleep' rather than "주무시다." Nouns also had honorific forms, such as "진지" and "뫼" for '밥,' and "즈가" for the honorific form of the third-person pronoun there was "즈가". This "즈가" seems to have originated from a Chinese pronoun. There were also words that elevated objects, such as the object honorifics that raise the object of a sentence or adverb. While "니르다" is a general verb for 'to say,' the verb "슌다" with '르,ㅂ' final consonants elevates the listener or the object of the sentence, meaning 'to speak to someone of higher status.'

Many of these words indicating object honorifics include the pre-final ending '-습-' to raise the object. Now, we will examine the Sino-Korean words in Medieval Korean language. Although Sino-Korean words were increasingly used in the early period of Korean language, their usage drastically increased during the Medieval period. As Koryŏ dynasty initiat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many Sino-Korean words were used, especially for cultural or academic terms. As a result, Korean vocabulary was dominated by Sino-Korean words, which led to the disappearance of many native Korean words that existed before.

For instance, the word "슈름" in (가) originally meant an umbrella in native Korean language, but it disappeared due to the dominance of the Sino-Korean word, "우산(雨傘)". Similarly, the native Korean numerals "온" and "즈믄" in (나),

which respectively meant hundred and thousand, were replaced by their Chinese counterparts, "백(百)" and "천(千)", leading to their disappearance as well. The word "고마" in (다) is the native Korean word meaning "concubine," but it disappeared due to the dominance of the Sino-Korean word "첩(妾)."

Examples like this are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native words that have disappeared now. Long-term use can also cause changes in the meanings of Sino-Korean words. For example, the word "간난" originally meant [difficulty] in Chinese characters. However, as the meaning of the word shifted to [poverty], its form also changed from "간난" to "가난." Similarly, the word "분별" meant [worry] in Medieval Korean, but it is now mainly used to mean [distinction]. Another example is the word "중상," which originally referred to all living beings in Buddhism. However, during the Medieval Korean period, it also came to mean "beast," and the pronunciation later changed to "증상" and finally to "짐승", which is now the modern Korean word for "animal."

Medieval Korean also includes loanwords from various languages. One significant example is loanwords from Mongolian, which came into use during the 13th century, when the Yuan Dynasty had significant influence in Korea. The official titles in (가) are recorded in Chinese characters in history books, which demonstrates that the official titles from the Yuan dynasty were also used in the Koryŏ period. And the Mongolian loanwords in (나), (다), and (라) are names of horses and falcons. At that time, horses and hawks were mainly used for military purposes, so many military-related terms were used, as can be seen from the Mongolian loanwords.

These examples show that vocabulary borrowing reflects the nature of contact between the two languages. In Medieval Korean, there were also borrowings from Jurchen, leaving traces mainly in place names in Hamgyŏng Province. 'tümen' in (가) means '만(萬)' in Jurchen, but it was adopted in Korean as '두만(豆滿)', creating the name '두만강'.

'wehe' in (나) means 'stone' in Jurchen, and this word was borrowed into Korean and used to name a place in Korea. Similarly, 'tungken' in (다) means '종(鍾) (bell)' in Jurchen, and it was used to name a mountain in the region. The name '통건(童巾)' was given to the mountain because its shape is similar

to that of a bell, and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name '통건(童巾)' was given to it.

In addition to Mongolian and Jurchen, there are also a considerable number of Sino-Korean vocabulary borrowed from Chinese. Examples (가) and (나) are related to clothing, fabrics, respectively. (다) are related to various objects, and (라) to food. From these words, it can be seen that many everyday vocabulary items were borrowed from Chinese.

While these loanwords are also written in "hanja", their pronunciation differs somewhat from that of other Sino-Korean vocabulary. These loanwords adopted the pronunciation of modern Chinese after the 13th century, which explains the difference in pronunciation from traditional Sino-Korean vocabulary.

Lecture

5차시 근대한국어의 어휘

In this session, we will examine the vocabulary of modern Korean. As modern Korean covers a long period of 300 years, a variety of changes in vocabulary have emerged. However, instead of showing completely new changes, the tendency of change shown in Medieval Korean continues to exis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modern Korean vocabulary is an extension of Medieval Korean vocabulary. The tendency of change refers to the disappearance of native words and their replacement with Sino-Korean words. In addition, an increase in loanwords from languages other than Chinese is observed. Also, it is considered an advantage of the modern Korean period that a variety of genres of works have been created, allowing for the confirmation of more abundant native Korean vocabulary.

Among the vocabulary of modern Korean, native Korean words are more similar to modern Korean than Medieval Korean in terms of appearance. Firstly, there are vocabulary items whose morphology has changed due to various phonetic changes. In (가), "거뿔" becoming "거북" is an example of "ㅂ" changing to "ㄱ." The change from "쌀" to "쌍" in (나) is an example of "ㅎ" changing to "ㅇ." In (다), the change in "머리" to "멀리" experienced a change of adding "ㄹ." There are quite a few examples of changes where phonetic changes affect the for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many words that have shifted their meaning to become closer to modern Korean in addition to their changes in form. For example, the word for "스랑ㅎ다" in (가) used to have two meanings,

[to think] and [to love], but now only has the latter meaning. The words "어엿
브다" and "좃" in (나) and (다) respectively used to mean [pitiful] and
[appearance], but now mean "예쁘다 (pretty)" and "짓 (negative thing)" in
modern Korean. These are such examples.

The word "어리다" in (라) used to mean [foolish], but its meaning shifted to
[young] or [immature] in modern Korean. The word "젊다" also had a meaning
of being young in age, but with the shift in meaning of "어리다" from foolish
to young, the word "젊다" began to represent a higher age, as the meaning of
being young became associated with "어리다".

In the case of (마), the word "쑈다" originally meant [to have a certain value]
when combined with the word "빔", which has the consonant "ㄷ". However,
currently "비싸다" is used to mean [expensive] instead of indicating a certain
value. Conversely, the meaning of "싸다" has changed to mean [inexpensive]
instead of [be of value].

The phenomenon of native Korean words being replaced by Sino-Korean
words existed in Medieval Korean, but it became much more prevalent in
modern Korean. For example, the word "노연" in (가) was replaced by "관인(官
人)" or "관장(官長)," and "아즙" in (나) was replaced by "권당(眷黨)." In this way,
there are cases where native Korean words are replaced with Sino-Korean
words, and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y completely disappear without
being replaced by Sino-Korean words.

These words were still used in the original version of Medieval books, but in
the revised version of these books published in modern times, some of the
words were changed. For example, "외푼다," meaning [to carve], was changed
to "사기다", and "헝다," meaning [small], was changed to "적다." Those words
such as "외푼다" or "헝다" used in the original edition were changed to "사기다
"or "적다" in the revised edition of the same work during the modern Korean
language period. This was because people of the time believed that these
words were no longer in use in their perception, and thus they became the
targets of the revisions.

Many literary works from the modern era of Korean were written entirely in

Han'gŭl without a single Chinese character. However, if we examine them closely, we can see that many expressions using some obsolete Sino-Korean words or classical Chinese phrases are still present in these works. The beginning of the book 『Yölyö Ch'unhyang sujölgä』 starts like this and is almost entirely expressed in Sino-Korean words with many expressions that are no longer commonly used. The fact that Sino-Korean words are written in Han'gŭl, often used in popular novels shows that not only popular writers of that time, but also readers, had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and expressions, even if they did not know how to read or write them directly.

During the modern Korean era, loanwords continued to be borrowed from Chinese. Records related to vocabulary or vocabulary lists from the 18th and 19th centuries contain a considerable number of Chinese loanwords from that period. As in the Medieval Korean period, words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such as clothing or food, were continuously borrowed.

Among these words, there is an interesting record related to the word "보리" in the book 『Aön kakpi』 written by the scholar Chöng Yak-yong. The word "보리" was originally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s "파려," which means "crystal". The word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was pronounced as [bölí] in China.

When this word entered Korea from China, it was borrowed as the Chinese pronunciation [bölí], and in Korea, it was written not as the original Chinese character "파려(玻璃)," but as the Chinese pronunciation "홀리." The book 『Aön kakpi』 explains that because the pronunciation of this word is the same as the grain barley, the word "보리 안경" was mistakenly pronounced and written with the Chinese characters for "맥경(麥鏡)" meaning a mirror made of barley. This illustrates how people in the modern Korean era used Korean-style Chinese pronunciation to represent loanwords from China in Chinese characters.

During the modern era of Korean language, Japanese can be considered one of the languages tha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The main contact between Korean and Japanese occurred during the Imjin War, but even after the war, Japanese words can be found frequently in Korean translations of Japanese

language learning materials, as shown on screen.

In addition to these words, various Japanese words were also borrowed during the modern era of Korean language. For example, "다담이" in (가) refers to a cloth that is laid on the floor, and it was mentioned in a report written after observing the customs in Japan. Words such as "조총", "담배", and "고구마" were also introduced to Korean during the period surrounding the Imjin War. By examining these examples, it can be seen that new words were introduced along with the import of new cultures, and the words that refer to those objects were also brought in from Japanese.

During the modern era, Manchu words were also introduced into Korean. The following are some representative vocabulary items that were borrowed from Manchu. The vocabulary borrowed from Manchu mainly consisted of everyday terms that were introduced through contact with the northern regions.

Moreover, not only neighboring countries, but also words referring to Western concepts and objects began to be frequently borrowed in the modern era, and many of these words came indirectly through China. With the influx of Western maps and scientific texts from the 17th century, the words used to describe these materials were also borrowed. Furthermore, since these Western materials were brought by Western missionaries in China, through Catholic-related books and materials, Catholic-related terminology gradually entered Korea as well.

In the late Chosŏn period, there are also some literary materials that show regional dialects instead of the standardized language used in the central region. Although there are rare cases where dialectal forms appear in "ŏnhae" literary materials, most of them only partially show regional dialect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documents that are entirely written in regional dialects. This may be because literary materials in this period were expected to adhere to certain linguistic norms. In addition, there are records from the Chosŏn period that describe dialects based on personal experiences in certain regions.

There were people who recorded their firsthand experiences with regional

dialects in the areas they visited. These record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mote regional dialects and provide vivid examples. For instance, Yu Ŭi-yang, who was exiled to Namhae in Kyōngsang Province in 1771 and to Chongsōng in Hamgyōng Province in 1773, recorded explanations of the dialects of those regions. Although these records are not systematic and only offer fragmented information, they are valuable resources for studying dialects in the past.

Lecture

6차시 현대한국어의 어휘

In this session, we will examine the vocabulary of contemporary Korean. Contemporary Korean refers to the period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emporary Korean and the Korean of previous periods is the vocabulary. Due to the influence of Western and other civilizations since the Enlightenment period of the late 19th century, new ideas and cultural elements have constantly entered the Korean language. As a result, a vast number of neologisms and loanwords have appeared in Korean vocabulary.

However, at that time, Koreans often received loanwords not directly from the West but via China or Japan in the form of Sino-Korean words. Many concepts used in Western academic fields were new to the East, and as such, these concepts were first translated into Chinese characters in Japan or China before being introduced into the Korean language. For example, the English words "science" and "geometry" were translated into Chinese characters as "과학" and "기하" respectively, in Japan or China.

As Chinese characters and Sino-Korean words played a critical role in adopting Western ideas and cultural elements, the proportion of Sino-Korean words in the Korean language increased over time. Especi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suffixes such as "-적(的)," "-주의(主義)," and "-화(化)," Korean could create many words containing these suffixes and numerous derivative words resulted. In (가), the suffix "-적" is added to words such as "애국적" (patriotic) and "이상적" (idealistic) to create adjectives that describe them. In "이상주의" (idealism) and "낭만주의" (romanticism), "-주의" is used as a suffix. In (다), "-화" also functions as a suffix in "기계화" (mechanization) and "민주화"

(democratization), and many new words are created using these affixes.

As the number of Sino-Korean words has increased exponentially, since Medieval Korean the idea that Sino-Korean words are used more often in elevated and sophisticated expressions than native words was reinforced. When there are synonyms with similar meanings in Sino-Korean words and native Korean words, Sino-Korean words tend to be more abstract and used for higher-level expressions.

Comparing (가)'s "연회(宴會)" (banquet) and "잔치" (feast), "연회" is considered a slightly more formal occasion, and it gives a more splendid feeling. Similarly, comparing (라)'s "행보(行步)" (gait) and "걸음" (step), while "걸음" is a completely everyday term, "행보(行步)" is a more elegant word that not only describes a person's gait but is also frequently used metaphorically.

At that time, there were many words borrowed from Western languages in Korean language. Among them, there are many loanwords that were not translated into Chinese characters first, but directly adopted the pronunciation of the foreign language. Since the direction of vocabulary borrowing is the same as that of the cultural influx, most of the words that came into Korean in Medieval or modern times are Sino-Korean words, borrowed from Chinese characters, and similarly, almost all foreign words in contemporary Korean are from English, which is language of the U.S.A.'s dominant culture and society. However, it is not only English from which foreign words came and are still coming into Korean.

Various languages' words have been borrowed and continue to be borrowed into Korean, including from English, French, German, Italian, and Spanish. Many words were brought from those various countries into Korean. Globally, many art or cooking related terminologies often come from French, and musical terms frequently come from Italian. In Korean, this is a very natural phenomenon.

One characteristic of foreign words in modern Korean vocabulary is that they have been heavily influenced by Japane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any Japanese words came into Korean through Chinese characters, or

directly adopted Japanese pronunciation. The words presented in (가) are Japanese native words or Chinese-character words that came into Korea with the same pronunciation. The words presented in (나) are foreign words borrowed into Japanese and then into Korean. In terms of (다), many new concepts that were introduced from the West were either referenced from classical Chinese texts in Japan or newly created using Chinese characters in Japan. (라) are words originally used as Japanese native words, but borrowed into Korean through Chinese characters.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words such as (가) and (나), which are obviously Japanese, have been actively eliminated from the Korean language through language purification movements, but there are still words that continue to be used.

On the other hand, the words listed in (다), such as "경제 (economics), 공화 (republic), 방송 (broadcasting)", and "발명 (invention)", and words like "가출, 낙서", and "수속" that represent Japanese native word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have entered Korean through Chinese characters as a medium. Therefore, many of these words have not disappeared from Korean since they are not recognized as Japanese by many Koreans, and there are also many cases where there are no suitable replacement words. Thus, it can be said that Japanese loanwords that entered Korean through Chinese characters are likely to continue to be used in Korean in the future.

One of the biggest characteristics of modern Korean vocabulary is that new words are constantly being created. Some neologisms are formed in the same way that existing words were created, while others are created through various new methods, along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가) is a two-syllable word that is originally derived from a longer expression by taking the first syllables of several words. (나) consists of antonyms created by inferring them from the original words, such as "소인배" or "상남자".

Additionally, there are neologisms that do not necessarily refer to a specific concept or object but are created by using new spellings to avoid the hassle of typing or for expressive effect. (가) is a two-letter word created by taking only the initial consonant of an existing word, which is called an acronym. The

words in (L) are neologisms created by reversing the order of letters in existing words. Finally, (C) is a neologism created by changing the spelling of an existing word based on the similarity of the shape of the characters used in the spelling.

These words have in common the fact that they are not necessarily referring to a new object, but are used for typing efficiency, or for expressive effect to convey a new feeling, particularly among certain groups.

讲义

1차시 어휘의 유형

大家好，我是仁荷大学韩国语文学系的许仁宁。本节课我们将一起学习韩国语词汇的历史。在正式说明各时代韩国语词汇所经历的变化之前先就词汇是什么，根据什么标准进行分类等问题进行学习。

词汇是单词的集合。因此虽然词汇和单词被区分开来但研究个别单词的形态和意义也很重要。但是词汇并非随机收集单词，而是和其他语言单位一样形成一定的体系。这样具有共同属性且能构成词汇体系的单词集合就被称为词汇类型。

如果按照类型划分词汇，那些属于词汇类型中的单词所蕴含的属性就能够被更为系统地了解。在划分类别的时候，划分标准会起到作用。词性、起源、语域等常被当做词汇类型的分类标准。首先看一下根据词性进行分类的词汇类型。

词性指的是根据语法性质把单词分成几大大类。而词性的分类标准就是形态、功能和意义。如果把韩国语按照形态进行分类，可以分成形态可以发生变化的“变化语”，以及不能够发生变化的“不变语”。如果根据功能来划分单词，那么可以分成用于主语或其他多种句子成分中的“体词”，可以做谓语的“谓词”，可以修饰其他内容的“修饰词”，表示语法关系的“关系词”，以及与其他内容不存在任何关联且可以独立使用的“独立词”等。在此基础上如果再细分，那么体词可以分成名词、代词、数词，谓词可以分成动词和形容词，修饰词可以分成冠词和副词，关系词和独立词分别为助词和感叹词等。除此之外，一些不被看成单词的要素也被包含在了词汇中。像词缀、缩略语、惯用语等。这就是根据所有词性进行的词汇分类。

接下来一起看一下根据起源进行分类的词汇类型。被认为韩国语本来就存在的单词，以及以这些单词为基础生成而出的单词被称为“固有词”。例句“가”是一个固有词构成的内容，而例句“나”则是固有词相互结合形成的内容。无论是何种语言，都会存在很多的词汇来自其他的国家或语言。并且以这些词汇为基础就会创造出许多新的词汇。这些词汇被称为“外来词”。

以前，有各式各样的词汇来自中国，而现在则有许多新地区的词汇传入。韩国语以汉字为媒介，在很长的时间里借用或者制造了单词。都存在用汉字标记这一共通点。例句“가”所展示的

是从中国传来的汉字，例句“나”所展示的是从日本传入的汉字单词，例句“다”则是用汉字造出来的词汇。

如果根据起源在哪，从哪个国家传入等问题来归纳它们的共性，那么将会十分困难。这些单词的共同特征是以汉字标记为基准，因此成为汉字词。汉字词在韩语的词汇中通常与其他外来词有所区别。

除汉字词之外，以那些从其他国家语言中传入的单词为基础而新造出来的单词被称为外来词。韩语从众多的语言中吸收了外来词。最多的就是从英语中吸收而来的词汇。另外，起源不同的两种以上的语言，如固有词和汉字词、外来词和汉字词等像这样结合其他语言而形成的词汇称为“混种词”。“책값”这一词就是汉字词和固有词相结合的词汇。根据起源分为固有词、汉字词、外来词、混种词等，这被称为语种。在韩语的语种之中，汉字词的比重最大。

接下来一起看一下根据语域进行分类的词汇类型。根据语言所处的环境及语言的外部条件等语言的使用会有所不同，词汇也不例外。像这样，语言外部条件的不同造成了语言使用上的不同，这一环境就被称为语域。根据语域的不同，词汇也可以分成多种类型。如果把基准点放到了使用者上，那么根据使用者可以分成方言、专业术语、隐语等，也可以根据使用人的态度分成俗语、禁忌语、委婉语等。根据说话人之间的关系也可以分成尊敬用语和非尊敬用语。其中我们先看一下方言。方言是地缘上某一语言使用集合内部所使用的词汇。

韩国的方言根据地区的不同表现出了差异性。像“새우”或者“가위”等单词一样，在不同的地区表现出了丰富多样的形式。方言之间的差异不仅体现在词汇的形态上，更多是体现在了语法的形态上。虽然在标准语中，主格助词在元音结尾的单词之后用“-가”，置于辅音之后时用“-이”。但像例句“가”或“나”一样，根据方言的不同有时位于元音之后时用“-이”，位于辅音之后时用“-이가”。此外，像“다”一样，使用“-래”或像“라”一样，不用“내가”的形式，而是把“나”直接和“-가”相结合从而使用“나가”的助词。

专业术语指的是特定专业群体使用的词汇。在所有的专业领域中都存在该领域所使用的概念或下位领域、事物等，也会更为详细地区分专家本身。专业术语是为了表达这种专业的概念和事物而创造的单词。与专业术语不同，日常生活中使用的词汇称为一般用语。由于有很多的专业术语是用来指代某个特定的对象，因此名词的占比极高。

隐语指的是某些群体秘密使用的词语。在特定团体使用这一点上虽然和专业术语存在共性，但在秘密使用这一点上，它与专业术语之间存在差别。隐语用于商人、采山参的“采参人”、犯罪分子、巫师、军人、僧侣等多种使用者群体中。隐语中名词的占比极高。在使用隐语时，其单词的形成过程非常复杂，而且往往不明确。由于隐语的目的在于保密，所以出现了上述的现象。

另外，俗语是指通俗使用的低俗的语言。俗语是指针对常用的词语用新颖的形式表现内心欲念。当想要重新表达时，这种需求就会得到满足。从主要用于特定群体这一点上来看，俗语和隐语之间很难区分。但与专业术语和隐语不同，俗语除了名词之外，还存在很多词性。而且创制这些单词的过程也是多种多样。

另一方面，禁忌语被认为不适用于日常生活，因此不经常使用这一类词。委婉语是缓解禁忌语带来的负面感觉且代替禁忌语使用的语言。具有代表性的例如：当人死亡时我们不说“죽다”，而是用“돌아가다”、“하직하다”代替，可以使用上述这种表达方式。这里“죽다”就是禁忌语，而“돌아가다”、“하직하다”就是委婉语。

“나”、“다”、“라”等都是与性行为或者厕所有关的表示否定色彩的内容，因此，可以说委婉语就是委婉地表达上述内容的词语。下面是尊敬语和非尊敬语。尊敬语就是指尊敬人或物的词语。反过来说非尊敬语则是降低人或物地位的词语。因为与人有关，所以经常在代词或动词中使用。有时候用于“당신”、“노형”这种尊敬的对象，另外，像“계시다”这种词汇也与尊敬主语有关。像“드리다”、“모시다”一样，它们都是在尊敬宾语时使用，因此可以说这些词汇为尊称动词。

反之，非尊敬语是降低人或物的地位时使用的语句。不光降低其他人，有时也可以降低说话人本身的地位。例句“가”是降低对话中对方的代词，例句“나”是降低主语行为的动词或形容词。例句“다”是降低说话人自身的第一人称代词。在非尊敬语中如果降低自身地位被称为谦让词。由于自身地位的降低，反而会起到抬高别人的效果。

讲义

2차시 어휘의 변화

世界总是在变化中。人会发生改变，语言会发生变化，存在的东西有可能消失，没有的东西也可能出现。在上述这种消失的过程中，如果事物或概念消失，那么指代它的语言也会消失。如果出现新的事物或概念，那么就会出现指代它的新词汇。本节课我们来看一下韩国语词汇的变化类型，并一起了解下产生此种变化的原因。

构成词汇的这些单词通过形态和意义成对出现。这些词各有所属的范畴。因此，词汇的变化类型可以分成改变形态的形态变化，改变意义的语义变化，改变所属范畴的范畴变化等三个方面。首先来看形态变化。构成单词的音韵在变成其他的音韵，或发生脱落、缩略现象时会发生形态变化。这种变化有时会出现所有韩国语的音韵变化中，也有时只出现于个别的词汇中。

例句“가”中的单词就是随着“·”的变化而变化。最初在2音节以下的音节中“·”变成了“ㅡ”，之后在第一音节中变成了“ㅏ”。例句“나”展示的是随着口开音化现象而发生变化的单词。当“ㄷ”或“ㅌ”出现在“ㅣ”、“ㅑ”、“ㅓ”、“ㅕ”、“ㅗ”等元音前面时，“ㄷ”或“ㅌ”变成“ㅈ”或“ㅊ”。例句“다”表现的是基于圆唇元音化现象而发生变化的单词。“ㅡ”与后面的“ㅜ”、“ㅝ”、“ㅞ”相连时，“ㅡ”变成了“ㅜ”。由于上面所说的“·”、口开音化、圆唇元音化等音韵变化适用于所有的环境中，所以可以说这是对整个韩国语词汇产生影响的变化。

但是也存在不影响全体词汇，仅对个别词汇产生影响的变化现象。例句“가”的“ㅈ름”中不论是第一音节还是第二音节都是用了“·”。（现在）第一音节和第二音节都变成了“ㅏ”，但如果根据一般的规则，那么第二音节应当变成“ㅡ”，因此表现出了例外的现象。例句“나”的“훈자”最初第一音节和第二音节都包含“·”，来源于“훈자사”这一单词，这一单词在经历了由“ㅈ”向“ㅉ”转变、“ㅈ”向“ㅊ”转变，以及“ㅈ”之前“ㄴ”的添加等多个变化过程，最终才变成了现代韩国语中的“훈자”一词。

可以说这些例子并不是在所有韩国语词汇发生的变化，而是仅对一部分词汇产生影响的“个别变化”。有时候发生形态变化之前的样子也会保留在特定的环境中。在例句“가”中的单词

“우ㅎ”，即“을”，在现代韩国语中变成了“위”。表示“上面”的意义。但是像“웃어른”、“웃돈”一样，在与助词“人”相结合的环境中并非是“위”，而是保留了“우”的形态。另外，起初表示“外面”意义的单词并不是“안”，而是“안ㅎ”这个含有“ㅎ”构成“ㄴㅎ”形式的单词。虽然在其他的环境中都会去掉“ㅎ”而变成“안”的形式，但当它与“밖”相结合形成的“안밖”这个单词就并非是“안”，而是由“ㄴㅎ”组成的单词“안ㅎ”。由于“안ㅎ”与“밖”相结合，所以并不是形成了“안밖”，而是形成了“안밖”的形式。

上述这种音韵变化导致了形态上的改变，但有些方言存在不同的现象。“가”的“여스”在现代韩国语的中部方言中被称为“여우”，代表动物“狐狸”的意思。而南部方言中被称为“여시”。“나”的“남”或“나모”表示“나무”，这一单词根据环境的不同表现出了不同的样子。现代韩国语的中部方言中为“나무”，但根据方言的不同也存在与“남”存在关联性的“남구”这一形态。

下面来看一看语义变化。词汇的意义可以变成和原义完全不同的其他意义，也可以从广义向狭义发生改变。“가”的“보람”原本指代[标记]的意思，现在被用作表示某事有着很高的价值。“나”的“얼굴”原本用作表示[形体]和[外貌]，而现在被用作表示人的“脸面”。这可以说是语义（范围）发生了“缩小”现象的例子。“다”的“사랑하다”本来也有[생각하다]的意思，但现在仅有[사랑하다]的意义，而[생각하다]的意义却消失不见。

最后我们来看一下词汇变化类型中的范畴变化。特定单词的词性会发生变化，原来的单词也会变成词缀。“가”的“새”原本可以表示名词[새것]，也可以当做冠词来修饰后面的其他词汇，也可以作为表示[새로]意义的副词。而现在像“새 집”、“새 차”一样，仅作为冠词使用。“나”的“녀느”原本表示“다른 것”，是名词。也可以修饰后面的名词，承担冠词的功能。但现在像“여는 때”、“여느 사람”一样，仅作为冠词使用。

也有很多原本是单词却变成了词缀的例子。“가”的“믄”这一单词包含“·”和收音“ㄷ”，原本像[만이]一样仅使用“믄”这一形态，表示“第一个孩子”的意义，是名词。但现在，仅使用“만”这一形态无法表示上述的意义。但却像“만딸”、“만아들”一样成为了构成复合词的前缀。“나”的“안ㅎ”或“술”原本是表示“암컷”、“수컷”的名词。但现在却像“암탉”、“수탉”一样成为了构成复合词的前缀。

像这样原本具有词汇意义的要素转变成了具有语法意义的要素，这就被称为“语法化”现象。全世界众多的语言中都存在这种语法化的现象。词汇变化的原因是多样的。大致可以分成语言原因和非语言原因。

因语言因素导致词汇变化的例子可以归纳为受到音韵变化影响，继而形态发生了变化。例句“가”中辅音“ㄱ、ㅂ、ㄷ”的性质同化了后面出现的“ㅡ”，使其变成了“ㅏ”，最终发生了变化。“나”是口开音化现象的例句。“ㅣ”和其他相似元音的性质同化了后面出现的“ㄷ”或“ㅌ”，因此发

生了音韵变化。由于前面或后面的声音的出现导致原本某一声音发生了改变，这种音韵变化之所以会发生，是由于可以使发音变得更简便、更容易。

所谓的音韵变化适用于某一特定时期，过了那个时期就不再适用。“다”中的单词“느티나무”、“잔디”等在发生口开音化现象的那个时期由于元音并非是“ㅣ”而是“ㅡ”，所以它并不适用于口开音化现象。但由于之后元音由“ㅡ”转变成了“ㅣ”，因此“느티나무”、“잔디”等保留了“ㅓ、ㅕ”的样子。

在意义的变化中也存在语言音素作用的情况。“가”的“마슴”表示[마음]和[심장]的意义，但现在仅保留了[마음]的意思。“나”的单词“치다”可以用来指代饲养牛或者猪等家畜的行为，也可以指赡养父母的行为。但现在仅保留了饲养家畜的意义。这就是缩小了原本词汇所蕴含的意义，因此可以说语言因素起到了作用。

例如，“마슴”中[심장]的意义用汉字词“肾脏”代替，“치다”中[부모를 봉양하다]的意义用汉字词“赡养父母”代替，那么汉字词就会产生更为详细的意义，随之而来的就是固有词所蕴含的一部分意义将会分担到汉字词之中，这样就会发生上述变化。

在词汇变化的音素中，非语言因素的变化可分为指示对象的变化和认知的变化。首先来看指示对象的变化。单词所指的指示对象如果发生了变化，那么单词也会发生变化。“가”中的“전차”指的是用电力行驶的车辆称为电车。也就是说现在地面上行驶的电车消失了，随着该指示对象的消失，指代该对象的单词“电车”也变得不再使用。

虽然以类似的方式又出现了用电的力量行驶在地面和地下的车辆，但这里却没有再用之前用过的“电车”这个词，而是使用了“电铁”或“地下铁”等这种单词。“나”中的单词“영감”本来指的是朝鲜时代身居高位的人，虽然朝鲜时代的官职现在已经消失，但“영감”一词一直沿用下来用来指代高级公务员、身份尊贵的人物或男性。虽然“영감”一词的指示对象消失不见，但这个词仍然指向另一个指示对象且保持旺盛的生命力。如果出现需要指示的对象，那么就会制造出指示它的词语。

像“가”一样，有一些商标名作为指代指示对象的名称被固定使用。像“나”一样，在接受新生的文化产物时，也经常同时接受指代它们的词汇。“다”的情况虽然不常见，但是为了指代新的事物，可以说是创制了新的词汇。下面看一下在词汇变化的非语言因素中认知变化相关的内容。人们的想法并不总是一样的，随着时间的流逝，社会如果发生了变化，那么人们的想法自然也会发生改变。

随着人们认知的改变，有时并非使用原有的词汇，而是使用其他的词汇。例句“가”的单词“간호부(看護婦)”中添加了表示女性意义的后缀“-부(婦)”，由于存在只有女性才能当护士的这

种差别化意义，因此使用了不体现性别意义的“간호원(看護員)”一词。“간호원”中的“-원(員)”与“의사”中的“-사(師)”相比会被认为地位较低。因此现在“간호사”的“사”与“의사”采用相同的“老师的‘师’”继而被使用下来。

“나”中“불구자(不具者)”本来指代身体有残疾的人。由于这里的“불구(不具)”表示原来应当具备但实际没有具备之意，因此对于身体残疾的人来讲存在某种偏见，所以现在都改成了“장애자(障礙者)”。现如今在“장애자”一词中也有人认为“-자”(者)本身具有贬低的意义，所以现在使用“人”字的“장애인(障礙人)”被更为广泛地使用。

讲义

3차시 고대한국어의 어휘

本节课我们将一起对古代韩国语的词汇进行学习。古代韩国语时期的语言、文字生活存在以下几种特征。第一，说话时虽然使用韩国语，但书写文字时却借用汉字来标记。这种语言和文字不一致的现象被认为最晚开始于三国时代。这种不一致的现象一直持续了很长的时间。

生活在朝鲜半岛的人们从三国时代开始就接受了汉字和汉文并加以使用。然后就出现了尝试采用从中国传入的汉字和汉文标记韩国语的现象。也就是借用汉字的音和训即借用发音和意义来标记韩国语。这种标记方式被称为借字标记法。借字标记法最初被用于标记人名、地名等专有名词。后来逐渐把标记的范围扩展到了句子标记上。在掌握古代韩国语的词汇方面，有必要考虑刚才提到的语言、文字生活上的特征。

此后虽然形成了韩文，但在古代韩国语时期，汉字是唯一的文字，因此使用这些文字标记了古代韩国语的词汇。在以前的文献资料中，要想确认古代韩国语的词汇，就需要借用汉字，来研究这些标记韩国语的借字标记资料。这个所谓的借字标记法在韩国语的标记上存在先天的不足。因此，用汉字标记古代韩国语的词汇时很难确定具体标记了哪些韩国语的单词。

但这里有两种资料可以提供帮助。一个是“未音添记法”相关的资料，另一个是对于同一对象同时采用“训借标记”和“音借标记”。“未音添记”是指在训读字之后添加表示末尾音文字的借字标记形式。这里表示末尾音的文字主要指的是借用汉字的音来标记的“音假字”。例句“가”中有“夜音(야음)”这一单词，当仅书写表示“밤”意义的“夜”这一文字时，那么这一文字究竟是表示“야”这一声音还是表示“밤”的意义，我们不得而知。因此很难了解这一文字代表了韩国语的哪一单词。

例句“가”中标记了“夜音(야음)”的汉字。仅凭借“夜”这一文字很难知道其代表了哪一个韩国语的单词。因为它即可以表示“밤”的意义，也可以表示“야”的声音。但是由于它的后面添加了表示单词“밤”末尾音“ㅁ”的汉字“音”，因此我们就可以知道“夜音”这一内容标记了韩国语的单词“밤”

“나”中展示了“慕理尸(모리시)”这一汉字标记形式。仅凭汉字“慕”很难确切了解写的是什么动词。“慕”之后出现“理”，在书写收音“ㄹ”时需要写下文字“尸”，因此可以发现这里的“理”就是“그리다”词干“그리-”中的“리”，而文字“尸”代表的是冠词形词尾“-ㄹ”。

第二，如果同时存在可以掌握某一对象“音”和“义”的相关资料，那么这将在推测借字标记法的语型时起到很大的帮助。此时存在使用两种以上的不同标记形式指代同一事物，如果把它们各自称为借训的训借字以及借音的音借字，那么它们的资料价值会大大提高。

来看“가”的例子，在标记同一地区的地名时存在“買忽(매홀)”和“水城(수성)”两种标记，比较这两种标记形式会发现“水”是借训，“買”是借音。另外，“城”是借训，“忽”是借音。换句话说，在这个地区汉字“水”的训为“買”，汉字“城”的训为“忽”，我们可以得出上述结论。

来看“나”，被称为“이사부(异斯夫)”的人就是指的苔宗。相互比较发现，“태(苔)”是借用了汉字的训进行标记，“异斯(이사)”则是借用了汉字的音进行标记。从“宗”和“夫”的关系来看也是如此。“宗”是借用了训进行标记，而“夫(부)”是借用了音进行标记。在中世韩国语中汉字“苔”的训是包含“入”收音的“잇”，因此可以发现表示“苔藓”意义的“苔”训是“잇”，而“宗”的训则为“夫”。

古代韩国语中可以确认的固有词有如下几种。“가”是数词相关的例子。“一等隱(ᄃᆞᆫ)、二盼(두블, 두블)”等出现在了古代韩国语的资料中，由于之后出版的《鸡林类事》一书中把表示“一”的单词标记为“河屯”，表示“二”的单词 标记为“途亨”，因此两者被标记成了“ᄃᆞᆫ”和“두블”的形式。

“나”是名词的例子。通过在“밤(夜音)”或“구름(雲音), 나리(川理), 누리(世理)”等单词的末尾音添加“음”或“리”，可以了解这些单词究竟具有怎样的语型。“다”是动词的例子，在推测动词的语型时通过“末音添记”的形式我们可以非常自信地说原来是标记了“맞다, 남다”等单词。“라”是副词的例子。由于固有词往往不能同时存在“末音添记”、训借和音借等形式，因此还存在很多无法正确说明读法的内容。另外，新罗在8世纪景德王时期改用汉字标记地名。由此可见，汉字和汉字词的影响力在当时已经得到了强化。

当时有许多概念无法用固有词标记，而为了标记这些概念，汉字词被大量传入。汉字词本身在韩国语词汇体系的内部形成了一个范畴。它与其他借用的词相比在性质上具有很大的不同。古代韩国语的汉字词绝大部分都是从中国传入的。

“가”是与儒学相关的汉字词，“나”和“다”是由佛教传入的汉字词。其中例句“나”是借用汉字把外语的音移过来的“音译字”。“다”是把外语的意思“意译”过来的佛教汉字词。我认为虽然(上述汉字词)存在以汉字为媒介传入的普通汉字词，但大多数还是通过和汉语进行直接接

触而传入的借用字。

“가”中“ㄱ”收音的“붓”或“먹”指的是书写文字时必要的工具这种文具由中国传入，因此从汉语发音中把“毛笔”和“墨”的名称直接借用了过来。因此，在中世韩国语时期上述文字的发音为“필”和“묵”，从“毛笔”和“墨”传入的情况来看，这些可以看作是很久之前就从中国直接借用到韩国语中的单词。“나”的“장”或“술”虽然比“毛笔”和“墨”的出现时期更晚，但“尺”和“俗”等汉字被认为是从汉语中直接借用而来。

讲义

4차시 중세한국어의 어휘

本节课我们一起学习中世韩国语的词汇。与古代韩国语相比，记录中世韩国语词汇的文献数量可谓非常之多。特别是训民正音创制之后，刊印了许多的韩文文献资料。通过这些韩文的文献资料可以更好地了解中世韩国语的词汇体系。本节课将按照固有词、汉字词、借用词的顺序讲解中世韩国语的词汇特征。

中世韩国语的词汇体系中引人注目的现象就是通过元音之间的对立关系反映意义差别的例子。我们称为元音调和现象。具有相同性质的元音一起出现，不论是阳性元音，还是阴性元音，都只和与自己性质相同的元音结合。在例句“가”中，阳性元音“·”和“ㅏ”相结合，阴性元音“ㅡ”和“ㅜ”相结合体现出了语感上的差别。

由于元音之间存在差别，因此造成了语感上的差别，“탕탕”和“텅텅”之间元音“ㅏ”和“ㅜ”存在不同，语感也存在不同，这种现象在韩国语的拟声词或者拟态词中经常能够见到。“나”中的词汇虽然在中世韩国语中意义上有所差别，但进入到现代韩国语后便已不存在这种对立的现象。“다”中都是因元音间存在差异而导致语义出现差别的词汇，这些词早在15世纪就已被确立下来。

“라”的“남다”和“넘다”之间原本并无较大差异，但之后只有“남다”被留存了下来。“넘다”指“超出一定的范围”的意思。“살”和“설”中原本“설”指代年龄，以及新年的第一天。但到了近代表示年龄意义的单词用“살”，而表示新年第一天意义的单词用“설”。

除元音之外，辅音也会存在因声音的对立造成语义差异的例子。“두드리다”和“쭈드리다”，“그스다”和“쓰스다”这些单词都通过松音和紧音之间的差异表现出语感的差别。在中世韩国语中曾有过用词汇差异表现敬语法的例子。首先，在表示主语尊敬时有如下词汇。

“가”中有“이시다”和“겨시다”，分别表示“있다”和“계시다”。“먹다”和“좌시다”表示“먹다”和“자시다”。这些内容与现代韩国语之间并无较大差别。作为“자다”的敬语，不是“주무시다”，而是使用“자시다”。名词中同样存在此种尊敬形式。“밥”的敬语有“진지”和“뉘”，“저”既是第三人称代词，也具有“자기（自己）”的意思，与之对应的尊敬形式为“즈가”。这里的“즈가”来自汉语的

代词。还有一些尊敬宾语或状语词汇，即体现出“客体敬语法”的词汇。在这些词汇中像“니르다”表示“말하다”的意思。反之，“ㄹ다”收音的“ㄹ다”的意思为“下级对上级说”，具有尊敬听话人，即“客体尊敬”的功能。

像这样，表示客体尊敬的诸多词汇中有许多都包含“-습-”这种表示客体尊敬的先语末语尾。下面看一下中世韩国语的汉字词。虽然汉字词在古代韩国语时期也逐渐增多，但在中世韩国语时期呈现大幅增长。朝鲜半岛从高丽时代开始实施科举制度，文化或学术上的高级词汇依赖于汉字词很长时间里汉字词都在韩国语的词汇中占据绝对地位。最终，许多沿用至今的固有词被汉字词所替换而消失。

“가”的“슈름”原本是指代雨伞的固有词。但现在却是用了汉字词“우산(雨伞)”。“나”中的“온”和“즈믄”分别是表示“百”和“千”的数词，这些词也变成了汉字词的“백(百)”和“천(千)”，最终不再使用。“다”的“고마”是指代“妾”的固有词，现在转变成了“첩(妾)”而消失。

这些例子只不过是众多已经消失的固有词汇中的一小部分。也有一些汉字词在长期使用后发生了意义上的变化。汉字词“간난”原本具有[어려움] (艰苦) 的意义。但随着它的意义变成了[빈곤함] (贫困)，其形态也随之从“간난”变为了“가난”。另外，“분별 (分别)”一词在中世韩国语中主要表示[걱정] (担心) 的意思，但现在主要用于表示[구별] (区别)。“중싱”这一单词原本在佛教中指代“芸芸大众”，但到了中世韩国语时期出现了“짐승 (动物)”的意思。之后“중싱”的发音变为了“즈싱”，之后又变成了“짐승”，现如今现代韩国语中指代动物时就使用“짐승”这一单词。

中世韩国语中也存在从众多语言中传入的借用词。首先需要说的是从蒙古语中传入的借用词。大致是在元朝影响力最为强大的13世纪左右传入的。“가”是与官职名称相关的例子。这些内容在历史书上用汉字标记，这说明元朝的官职名称也曾用于高丽王朝。“나, 다, 라”表现的蒙古语借用词主要是“马和鹰”的名称。那是因为在当时马和鹰都用于军事目的，由此可见使用了很多与军事相关的术语。

从这些例子可以看出，词汇的借用反映了两种语言之间相互接触的特点。中世韩国语的借用词中也有一部分来自于女真语。女真语的使用痕迹主要体现在咸镜道的地名上。“가”中的单词“tümen”表示女真语的“萬”。这在韩国语中变成了“두만(豆滿)”，因此产生了“두만강 (图们江)”。

“나”中的单词“wehe”在女真语中表示“돌”，指代“돌”的单词被借用到了韩国语中，因此这一地区就被命名为“翰合(워허)”。“다”中的单词“tungken”在女真语中表示“鍾”，在此地区有一座名为“통건산”的大山。山被命名为“통건산”，是由于它的形状像“중 (钟)”一样，因此叫做“童巾(통건)”。

当然，除了蒙古和女真之外，韩国语中也有很多的借用词从汉语传入。例句“가”是与服饰相关的借用词，“나”是与布料相关的借用词，“다”是与各种事物相关的借用词，“라”是与各种小吃有关的借用词。从这些单词可以发现，汉语中与实际生活相关的各种词汇被大量借用。

这些借用词虽然用汉字标记，但可以看出这些单词的发音与汉字词的发音之间略微存在不同。这些并非传统的韩国汉字发音，而是因为13世纪之后开始吸纳了近代汉语的发音，所以它与传统的汉字音之间存在差别。

讲义

5차시 근대한국어의 어휘

本节课我们将学习近代韩国语的词汇。近代韩国语经历了300年的漫长时期，词汇的变化多种多样。与其说是出现了新的变化，不如说是中世韩国语中表现出的变化趋势被继续保留了下来。

因此可以说这是中世韩国语词汇的延续。这里所指的变化趋势，不仅指固有词消失或被汉字词替代的内容。也指除汉字词以外的从其他语言传入的借用词持续增加的内容。另外，随着创作出各种体裁的作品，可以确认出更为丰富多样的固有词汇，这也可以说是近代韩国语时期的优点。

近代韩国语的词汇中，与中世韩国语相比，固有词更接近于现代韩国语。我们先来看一下因各种音韵变化而导致语型变化的词汇。“가”中的“거북”变成了“거북”，是表现“ㅂ”向“ㄱ”转变的例子。“나”中的“쌍”变成了“쌍”，是表现“ㅎ”向“ㅇ”转变的例子。“다”中的“머리”变成了“멀리”，是表现“ㄹ”添加现象的例子。像这样，音韵变化影响形态，并使之发生变化的例子还有很多。

另一方面，有很多词汇虽然形态上不太一样，但意义却已经变得接近现代韩国语。“가”的“스랑ㅎ다”原本含有[생각하다]和[사랑하다]两种意义。但现如今[생각하다]的意义消失不见，仅保留下来[사랑하다]的意义。此外，此外，“나”和“다”中分别展示了“어엿브다”和“쥬”两个单词，这两个单词原本表示[불쌍하다]和[옹모]两个意思，但进入到现代韩国语后却变成了“漂亮”，以及表示否定色彩的[行为]。这就是“나”和“다”的例句。

“라”中的单词“어리다”表示“单词‘어리다’的意义是[어리석다]。随着词汇变成了[年轻]这一意义，原本[어리다]的意思也赋予给了单词“젊다”。但由于单词[어리다]从[어리석다]的意义转变成了表示“年轻”的意义，因此单词“젊다”所指代的年龄也就更高。

“마”中的单词“싸다”原本与前面出现的带有“ㅍ”收音的“빔”构成了“빔싸다”的形式，表示[具有一定价值]的意思。但现如今“비싸다”并非表示[具有一定的价值]这个意思，而是表示“价格昂贵”。反之，“싸다”并非表示[有价值]的意思，而是向[价格低]这个意义转变。

虽然中世韩国语中存在一些固有词被汉字词替代的现象，但近代韩国语中存在更多此类现象。“가”的“노연”转变成了“관인(官人)、관장(官長)”，“나”的“아즘”变成了“권당(眷黨)”。有时候固有词可以替代汉字词，但也有很多的词不被汉字词取代，直接消失不见。

在中世纪发行的原版中这些单词一直保持使用，但到了近代，在被重新修改印刷的重刊本书籍中，“외푼다”这一单词表示[새기다]的意思，被修改成了“사기다”这一单词。表示[작다]意义的“헉다”在重印本中被修改成了“적다”的形式。像“외푼다”或“헉다”一样，出现在原版中的单词在进入近代韩国语时期后被修改成“사기다”或“적다”，这是由于在当时人们的意识中认为“외푼다”或“헉다”是不被使用的词汇。因此才被当成了修改对象。

从近代韩国语时期的文学作品来看，很多都是纯韩文标记的内容，没有一个汉字。如果仔细观察，就会发现这些不使用的汉字词、韩文词组等在现如今却被大量使用。《烈女春香守节歌》这本书的第一部分开头是这样的。几乎都是用汉字表达，但也存在许多现在不怎么使用的表达方式。在上述这种大众小说作品中，常用韩文的形式标记汉字表现这表明当代的大众作家和读者群即使不会读写汉字，但他们也具备汉字词和汉字表达相关的知识。

近代韩国语时期也一直从汉语中引入借用词。查阅18、19世纪的词汇集或与词汇相关的记录会发现当时使用了大量的汉语借用词。与中世韩国语时期一样，像服饰、食物等与日常生活存在密切相关的词汇被持续借用。在众多词汇中，关于“보리”这个单词，学者丁若镛写了一本叫做《雅言觉非》的书，书中的记载十分有趣。“보리”一词原本用汉字写为“파려(玻瓈)”，“파려(玻瓈)”指代的是水晶。用汉字标记的“파려(玻瓈)”现在在中国发成了[bōlǐ]的音。

这个单词从中国传入朝鲜后借用了“[bōlǐ]”这一中国式发音。在朝鲜没有按照这个单词原本的汉字写成“(玻瓈)”，而是依据了中国的发音，并用汉字“菩里”来标记。这一内容被记录在《雅言觉非》中。由于这一单词的发音和谷物“麦子”一样，因此把表示“水晶眼镜”意义的单词“玻璃眼镜”翻译成了“麦镜”，即用谷物“麦子”制作的镜子，这是错误的翻译，遭到了批判。由于从中国传入的借用词以发音为基础，因此就如何标记汉字这一问题，人们采用了使用韩国式汉字发音来标记单词的形式。这种现象在近代韩国语时期就已存在。上述内容很好地展现了这一事实。

在近代韩国语时期接触到的最为活跃的语言是日语。韩国语和日语之间最大的接触虽然是因壬辰倭乱这一战争引起的，但观察壬辰倭乱之后出版的日语教科书会发现，日语的单词就像画面展示的那样，在韩国语的译文中也出现了很多。

除了这些单词之外，近代韩国语时期还借用了多种的日语。“가”的“다담이”指的是铺在地板上的纺织品，它出现在了记录日本观察的文字中。像“조총”、“담배”、“고구마”等都是壬辰倭乱

前后传入到韩国语的单词。从这些例子中可以看出，随着新文化产物的传入，指代这些事物的语言也一并从日语中传入进来。

在近代韩国语时期，也从满洲语中借用了词汇。代表性的词汇如下。通过北方地区的相互接触发现，主要借用了满洲语中的日常用语。

而且在近代韩国语时期，不仅是临近朝鲜半岛的国家，指代西方概念和事物的诸多单词也开始被逐渐借用。通过中国间接接触到了很多与西方文化产物有关的单词。从17世纪开始，途经中国传入了欧洲地图、科学书等书籍和文化产物指代这些事物的单词也随之一起传入。此外，这些西方的文化产物是由西方来到中国的传教士传来的，因此通过天主教相关的书籍或资料天主教相关的术语也逐渐传入到朝鲜半岛。

朝鲜后期的某些文献资料中并没有使用标准语，而是使用一些地区的方言进行记录。在谚解相关的文献资料中出现了表现方言语型的罕见书籍。大多数文献中的地方方言只是出现了某些部分，很难找到从头至尾仅用方言记录的文献。可能是由于在这个时期文献本身具有必须标记某种规范语言的特性，因此才会出现这种情况。此外，自己去过某一地区并直接经历了有关方言的内容，这些也能够在朝鲜时代的记录中找到。

有些人对自己去过的地方留有记录。他们留下的记录对当时的方言起到了宣传作用，并提供了生动的实例。从这点来看意义重大。有一位名叫柳义养的人在1771年被流放庆尚道南海，于1773年被流放到咸镜道钟城。他在留下的记录中对庆尚道方言和咸镜道方言进行了说明。虽然有关这些地区的方言记录存在不系统、片面等缺点，但这些资料可以说是当时珍贵的方言记录。

讲义

6차시 현대한국어의 어휘

本节课我们将学习现代韩国语的词汇。现代韩国语指的是从19世纪末开始到现在的这段时间。现代韩国语和之前时期的韩国语之间最大的不同之处就在于词汇的不同。19世纪末开化期以后，受到西方以及其他文明的影响，新思想、新文化产物等源源不断地进入到韩国。因此，韩国语的词汇中出现了很多的新造词和外来词。

但是比起直接从西方地区吸取外来词，对于当时的韩国人来讲，他们更多的是选择通过中国和日本吸收汉字词。西方学问中使用的很多概念在东方都是新的事物。这些概念大多是先在中国或日本被翻译成汉字，之后再传入到韩国。像把英语的“science”翻译成“科学”，或者把“geometry”翻译成“几何”，就是在日本或者中国，把这些西方的科学术语翻译成了汉字。

随着汉字词在吸收西方思想和文化产物方面发挥着重要的作用，汉字词在韩国语中的比重也越来越大特别是传入了包含“-적(的)”、“-주의(主義)”、“-화(化)”等后缀在内的单词韩国语中也创造出大量包含“-적(的)”、“-주의(主義)”、“-화(化)”等后缀在内的单词。最终，产生出了众多的派生词。在例句“가”的“애국적”、“이상적”中，包含了修饰“애국”、“이상”等名词的“-적”。“이상주의”、“낭만주의”中，“-주의”作为后缀与其他成分相结合。“다”的“기계화”、“민주화”中的“-화”表现出了词缀的功能，使用这些词缀产生出了数量庞大的新词汇。

由于汉字词呈现几何级数式的增长，在中世韩国语之后，与固有词相比，汉字词被用于高水准、高格调的词汇表达中。这种想法更为根深蒂固。当汉字词和固有词之间存在语义相近的“近义词”时汉字词多用于较为高级或表现抽象意义的语境中。

“가”的“연회(宴會)”和“잔치”相比，“연회(宴會)”用于更为正式的场合，而且给人以华丽的感觉。另外，“라”的“행보(行步)”和“걸음”相比，“걸음”就是日常用语。反之，单词“행보(行步)”可以说给人高格调的感觉，不仅表现出人的步态，也经常被用作比喻义。

从西方传入的单词还有很多。其中也有很多并非事先翻译成汉字词再传入到韩国，而是按照西方语言的发音直接吸收为外来词。由于词汇借用的方向与文化传入的方向一致，所以在中世纪或近代，就像韩国语大部分词汇都是从中国传入的一样，现代韩国语中绝大部分的外来

词，不论是文化上的还是社会上的都是从使用英语的强国，即“美国”传入的。但这只是说明仅从英语中传入了外来词，并非正在传入。

除此之外，还有许多语言的词汇进入到了韩国语中，现在也在持续借用中。因此从英语、法语、德语、意大利语、西班牙语等各国语言中借用了词汇充当韩国语。在全世界范围内，艺术或料理相关的术语多数是从法语中传入。与音乐相关的术语则多来源于意大利。这在韩国语中可谓是非常自然的现象。

现代韩国语的词汇中外来词的特征之一就是受到了日语的影响。经历了日本帝国主义殖民时期，日语的词汇以汉字为媒介进入到了韩国语的汉字词中，有许多词汇按照日语的发音直接进入到了韩国语之中。如“가”所示，日语的固有词或汉字词按照日语的发音直接进入到了韩国语中。如“나”所示的词汇是从西方传入到日语中的外来词，这些单词又通过日语进入到了韩国语中。“다”所示的词汇是日本在参考中国古典的基础上，把西方传入的新概念又用汉字重新加以创造的单词。“라”所示的单词在日语中原本被当做固有词使用，但这些词却通过汉字这一媒介被借用而来。

自从韩国成为日本的殖民地之后，像“가”或“나”一样，这些任谁都能看出是日语词汇的单词在经历了语言纯化运动之后，很多被清除出韩国语，但也有一些词汇依然被使用至今。

另一方面，“다”所展示的单词为“경제”、“공화”、“방송”、“발명”等或者把日语的固有词标记为汉字词的“가출”、“낙서”、“수속”等这些单词虽然是日语的固有词，但以汉字为媒介传入韩国，因此在韩国很少有人把这些词看成日语，所以这些词很难从韩国语中消失，而且多数情况下也没有可以替代这些内容的词汇。因此，可以说这些以汉字为媒介传入的日语借用词在今后的韩国语中继续使用的可能性会很高。

现代韩国语词汇最大的特点之一就是不断创造出新的词汇。新造词和现存的词汇虽然采用相同的造词过程和方式，但随着网络和智能手机的普及，新造词被通过多种多样的方式创造而出。“가”原本是一个较长的表现形式，从其中几个词节中取首音节形成了两个音节的词。“나”的“대인배”和“하남자”是从原来“소인배”和“상남자”中类推出的反义词。

除了这些特定概念或指示对象之外，虽然不指代新的对象，但为了避免麻烦或为了表现效果，有时也会重新使用文字创造出新的词汇。“가”是从现有的单词中只选取“初声”而创造的单词。这种单词被称为“头文字词”。“나”展示的是在原有单词的基础上把字的顺序颠倒后形成的新造词汇。例子“다”展示的是以单词字形的相似性为基础改变标记中使用的字而形成的新造词汇。

上述这些虽然不是指代某个新的对象，但是在打字的时候会减少打字数，或者能够在特定的

群体中表现出某一效果。因此可以说是为了给人一种全新的感觉而使用，在这一点上它们具有共性。